

the
other

$$\overline{m} \cdot \frac{\partial}{\partial x} : \frac{\partial}{\partial x} = \frac{\partial}{\partial x}$$

수학과 · Math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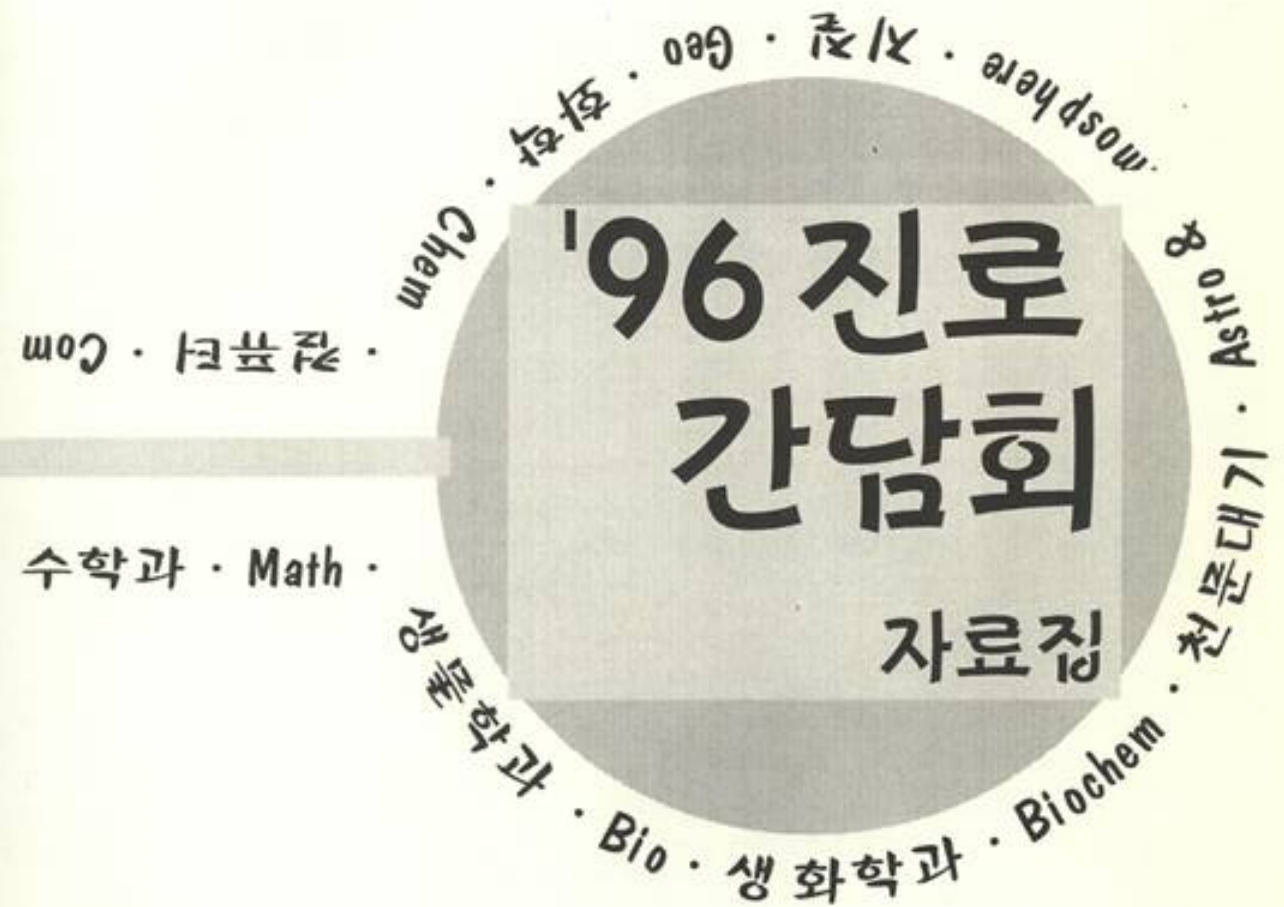
'96 진로
간담회

자료집

Chem · Geo · Astro · Bio · 생화학 · 천문대기 · Astro · Biochem · 생화학 · 천문대기 · Astro · Biochem · 생화학 · 천문대기

연 세 대 학 교
제 7 대 이과대 여학생회

이과대 여학생회



연 세 대 학 교
제 7 대 이과대 여학생회

◎ 글심는 순서-----

1. 인사말

2. 이과대 여학우 진로 현황

3. 학과 이야기 - 내가 생각하는 우리과,
학교생활을 하며 느낀 점,
고직이수

4. 대학원 소개 - 인터뷰

5. 우리과 교수님을 뵙고 - 천문대기과학과 전해영 교수님

6. 변리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 화학과 선배님들

7. 영국 대사관에 계신 생물학과 선배님과 함께 - 한지원 부상무관

8. 편입과 복수전공 - 법대, 치의대, 건축공학과

9. '96 여성 취업박람회에 다녀와서

10. 신인사제도와 여성고용

11. 대학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진로 간담회 자료집을 내며

제7대 이과대 여학생회장 이형림

고3병이라는 명칭이 불을 만큼 우리 사회에서 입시가 청소년들에게 주는 부담이 크듯이, 대학 4학년생들은 또다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며 어쩔 수 없는 중압감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대학 4년을 다니며 하는 공부들이 처음 내가 흥미를 느꼈던 것과는 다르다 싶은 생각에 암기력 테스트라도 하는 것처럼 지내오면서 뭘 이루었는가 하는 회의에 빠져 보기도 하지요.

지난 번의 진로에 관한 이학인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3학년까지는 대부분의 학우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학원 진학을 꼽으며 그 외에는 구체적인 고민이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몇년 후에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게 될까하는 문제를 회피하며 다만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대학원 진학이 아무 생각없이 2년의 유예기간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어간다고 비판을 하기도 한 것처럼요.

하지만 이공계를 선택하고 온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고 시절부터 나름의 목표가 확실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이 취직하고 놀기에 적합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지내는 개념없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거란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막상 내가 졸업을 하고 무엇을 할까하는 생각에서는 모든 것이 막막해 지지요.

정, 재계의 찬바람들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쟁해보기도 하고, 과연 무엇이 내게 평생 직업이 될까 하는 두려움들은 소수가 겪는 일은 아닙니다. 선배들과 이런 저런 문제들과 부딪히는 속에 이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들더군요.

능력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던 친구가 취직을 준비하면서 내가 여자라는 것이 절실히 와 닿는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엔 여동기들이 상위를 차지했었는데 졸업후 2년이 지나고 보니 여자애들은 또 다른 전문 자격증을 준비 하고 있고 시험때만 되면 노트를 빌리던 남학우들은 어느 곳이든 잘 들어가더라 일을 하고 있더라입니다.

여자에 대해 눈에 보이는 차별은 없다고 말하는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왜 그런지 모르게 회사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여직원들은 없더라 말을 하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지난해 여직원 호봉차별 소급 적용으로 그동안의 부당한 대우를 만회하고자 한 것이 학외로 까지 외화되어 학교의 폐소 판결로 100만원 벌금으로 끝나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단 이상으로 영향을 행사할 부장급 이상의 여고직원이 하나도 없었던 탓도 컸지요.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결정권자는 따로 있으니까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부제로 인해 새로 들어온 96들도 진로의 고민은 예외가 아닐 겁니다. 만나는 후배들마다 어느 학과를 전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자신이 원하는 전공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을 하다 분위기가 살벌해 졌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요.

이번 자료집을 준비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선배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개인적으로 자신의 진로 선택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계에서 활동하시는 여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혼과 직장 육아등의 이야기까지 선배님의 말씀을 거르지 않고 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학부생을 위해 각 학과의 선배님들이 써주신 글에도 형식적인 소개가 아닌,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게 될지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담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과대생 후배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진로를 생각하여야 하겠지요. 그리고 이 자료집이 이과대 학우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각 과의 주체들과 글을 써준 사람들, 그리고 후배들의 인터뷰에 선뜻 응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과대 여학우 진로 상황

(기타에는 취업이나 대학원 준비 중, 그리고 진로 상황을 알 수 없거나 결혼해서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학과 ■

	취업	대학원	유학	편입	복수전공	교사	기타
90학번	7		1			1	2
91학번	5						3
92학번	3	3			1		

취업 : LG, 삼성데이타시스템, 회계 법인 입사, 삼성화재, 제일은행, 제일건설, 대한 생명 전산실, 효성컴퓨터, 출판사, 한화, 대우등

기타 : 대학원 준비, KIST 졸업 등

■ 물리학과 ■

	취업	대학원	유학	편입	복수전공	재학 중	기타
88학번	3						3
89학번	1	3					
90학번	4						2
91학번	3					1	
92학번			1			1	

취업 : 현대전자, 삼성전자, 삼성데이타시스템, LG 등

대학원, 유학 : 우리학교 물리학과 대학원, 일리노이대 천문물리 전공

재학 중 : 교환학생 갔다옴

■ 화학과 ■

	취업	대학원	유학	편입	복수전공	교사	기타
88학번	4					2	3
89학번	3	1	1				2
90학번	2	3		2			1
91학번	6			1	1		
92학번	8	3					1

취업 : 벽산건설, 연인과학, 외국인 회사, 동화 제약, 유공, 대한 항공 삼성데이타시스템, 변리사 사무소, 삼성그룹 연구소, KIST 연구소, 법률사무소, 학원 등

편입, 복수전공 : 약대, 치대, 건축공학과

대학원 :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포항공대, 이대 등

기타 : 약사, 그리고 결혼해서 주부로 계신 분과 진로 상황을 알 수 없는 분들까지 포함.

■ 생물학과 ■

	취업	대학원	유학	복수전공	재학 중	교사	기타
90학번	3(+2)	4				1	4
91학번		5		1			3
92학번	8	1	1		2		

취업 : 컴퓨터 프로그래머, 메디슨 의학기계, 은행, 여행사, 편집, 방송, 학원(대학원 다니면서 학원에도 나감) 등

대학원, 유학 : 우리학교 생물과 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미국 신방과 대학원 유학

기타 : 타학교 재입학 포함

■ 지질학과 ■

	취업	대학원	편입	복수전공	교사, 공무원	기타
90학번	3	1	1			1
91학번	2	1	1	1		2
92학번		1		2	1	1

취업 : 금호 섬유화학, 쌍용 정보 통신, 학원 등

대학원 : 우리학교 지질학과 대학원

교사, 공무원 : 7급 교육공무원 발령 대기 중

편입 복수 전공 : 도시공학과, 주거환경학과, 이대 물리교육과, 동국대 국어교육과 등

기타 : 대학원 준비, 결혼 등

■ 천문대기과학과 ■

	취업	대학원	유학	편입	복수전공	기타
89학번	4					1
90학번	5	1	1			3
91학번	3	3				2
92학번	2	1				5

취업 : 삼성데이터시스템, 한국이동통신, LG, 한국컴퓨터, KBS 기상캐스터, 환경연구소, 은행, 학원, 영상 번역, 케이블TV, 복수 전공 후 현물회사, 의류회사 등

대학원, 유학 : 우리학교 천문대기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일리노이대 유학 등

기타 : 방송문화원, 취업 준비 등

■ 생화학과 ■

	취업	대학원	유학	편입	복수전공	기타
90학번	3	8				
91학번	2	4	1			1
92학번	3	3	1	2		2

취업 : 삼성, LG, 시사영어사, 한라 중공업, 한국 STIEFEL 마케팅부등

대학원, 편입 : 우리학교 생화학과 대학원 이대 의대 본과, 우리대학 의대본과

■ 컴퓨터과학과 ■

	취업	대학원	유학	편입	복수전공	재학 중	기타
90학번	7	3	1	1			1
91학번	1	3	2	1	2		
92학번	8	5				2	

취업 : IBM, 삼성데이터시스템, 동양 SHL, 데이콤, 엔더슨 컨설팅, ORACLE, 외국인회사 등

대학원, 유학 : 우리학교 대학원 박사 또는 석사 과정, KAIST, FRANCE U.P 건축대학, 미국 SYRACUSE 박사과정, 미국 NORTH CAROLINA 대학 유학 등

복수전공, 편입 : 신문방송, 의류환경, 고려대 법대 등

MATH를 소개하자!

수학과 4학년 선배님들

수학은 다른 어느 학문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학에 와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수학 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한다. 여기서는 수학과 의 수업 과목을 주로 설명하려고 한다.

1학년 때는 미적분학을 공부한다. 그리고 집합론이라는 과목이 있다. 집합론 은 수학의 이론을 전개해나가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바탕을 제공해주는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분야이다. 집합론은 모든 다른 수학 의 분야를 공부하는 기본이 될 학문이다.

2학년때는 선형대수, 고등미적, 확률론, 그리고 편미분 방적식에 대하여 배우 게 된다. 선형대수는 벡터공간과 행렬의 관계등에 대해서 공부한다. 고등 미적은 수학의 아주 많은 분야를 보여준다. 복소해석, 미적분, 벡터등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계산 능력이 향상되기도 한다.

3학년때부터 본격적인 수학과 의 만남을 갖게 된다. 추상대수, 위상수학, 미분 기하, 그리고 복소해석이라는 분야가 있다. 이때부터는 주로 눈에 잡히지않는 분야를 다루게 되는 것이다. 대수에서는 연산과 집합의 구조(어떻게 보면 어떤 집 합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실수로서의 확장 과정)에 대해서 공부한다. 결 국에는 방정식을 풀수있는 가능성을 조사하고, 해의 존재 가능성을 알아보게 된 다. 위상수학은 거리의 개념을 도입해서 수열의 수렴성과 함수의 연속성등 해석 학의 기본이 되는 것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있는 2차원에서 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미분기하에서는 공간에 존재하는 면이나 곡선의 성질을 공부한다.

4학년때는 실해석, 추상대수, 수치해석, 정수론, 수리통계,현대기하, 행렬론, 그 리고 수리논리등 다양한 분야를 배울수 있다. 실해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 함수의 연속성, 미적분, 그리고 수열의 수렴성등에 관해서 배우게 된다. 약간은 어려우면서도 계속 공부를 할 사람들에게겐 필수적이다. 수치해석은 수학의 문제 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해결해주는 분야이다.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학문이 바로 정수론이다. 당연한 것 같은 정수의 기본 성질을 밝히는데,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적용하는 학문이다.

간단하게 수업과목에 대해서는 설명하였다.

공부를 마치고 수학과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분야는 다양하다. 순수 공

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학원과 유학길에 오르며, 응용공부를 하는 사람도 많아서 전산이나 경제 경영을 부전공하거나 복수전공하는 사람도 있다. 대학원 에 진학하며 자신이 진짜 공부하고 싶었던 전혀 다른 분야로 전공을 바꾸는 경 우가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수학은 논리의 학문이라는 점이다. 수학적 인 논리나 전개과정을 확실히 공부하려면, 집합론에 대한 지식을 넓히길 바란다. 덧붙여 수학을 공부하게 된다면 나중에 결코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다.

아메바의 이야기

생물학과 선배님

“너 전공이 뭐니?” “저 ~ 생물학과인데요.” “너 그럼 개구리 해부 많이 하겠다.”

생물학과를 전공한다고 할때 많이 듣게 되는 말들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 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뭘 모르는(?)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우리 생물학과 의 학부과정에는 첨단 생명과학, 유전공학의 기초가 되는 여러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으로 동물 분류, 식물 분류에서부터 세포학, 생화학, 미생물학, 발생학, 유전학, 세포생리등의 여러 기초과목들이 있고 전공 선택 영역은 더 다 양해서 조직학, 유기화학, 바이러스학, 신경생리학, 생물공학, 면역학 등 세계어디 에도 뒤지지 않을 가장 최근의 HOT ISSUE에 대한 강의 들이 여러분을 기다리 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는 젊은 교수님들이 새로이 들어오셔서 가장 최근 의 연구 정신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강의에 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지도에도 적 극적이시기 때문에 원한다면 학부 과정에서도 심도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 도 생물학과 의 자랑 중 하나입니다.

생물학과 의 자랑이 이것 뿐만이 아니죠. 화기 애애하다 못해 “가축적”이기 까 지한 생물학과 사람들의 분위기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인지, 선후배 동기간이라 기 보다는 형,누나,동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따뜻하고 친근한 사람들 이라는 것도 생물학과에 몸담고 있는 즐거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물학 을 전공하면 뭘을 해서 먹고사나?’ 에 대해 궁금한 친구들도 많을 것 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생물학과에 가면 취직도 못하도 굶어 죽는 다더라’ 하 는 소리에 혹시나 현혹되지는 않으시는 지요? 미국 학생들이 선택하고 싶은 전

공 과목 중 'Biology'가 1위를 했다는 사실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소득 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생물학과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고조되는 환경 보호 운동과 기초과학 특히 생명과학에 대한 투자 증대와 경쟁력의 강화로 생물학의 연구 분야는 점점 넓어지고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생물학에 뜻을 두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면, 유전공학을 이용한 식량 문제 해결, 그리고 질병의 치료에 이르기까지 최첨단을 걷는 연구분야들이 생물학과를 전공한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신문, 방송 등에서 보드시피 기초과학,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졸업한 후의 진출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학위를 받은 선배님들은 기업 연구소(유공 Biotech), 제약 회사 연구소, 병원연구소, 공무원과 같은 식품 회사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선발은 전·후기 두 번에 걸쳐 약 20여명 가량을 뽑고 있고, 선발 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특채전형과 필기 시험으로 선발하는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고 더 나아가 인류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생명과학'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진 않으세요? 의욕적이고 탁월한 실력을 가지면 교수님들과 언제나 여러분과 상담을 해 줄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배우며 느낀 물리학

물리학과 94학번 윤성희

사람들이 흔히들 그러지. '물리 그거 어려운 건데...' 맞는 말이다. 누군 또 그러지. '세상에 안 어려운 일이 어디 있나?' 그것 또한 맞는 말이다. 나는 내가 걸어 온 길 외에는 잘 모른다. 그래서 물리학이 어떤 것보다는 쉽고 또 어떤 것보다는 어렵고, 그런 거 모른다. 내가 아는 한 세상에 물리학 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없으니까... 물리학을, 또는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을 한 단어로 쓴다면, fragile (난 이 단어를 찾기위해 한영 사전을 뒤져야 했다.)! 이 단어가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지, 아마 사람마다 다를까다.(내가 알기로 fragile은 형용사다. 사람의 감정에 객관성을 주려 만든 형용사조차 우런 뭐라 꼬집어 말할 수가 없다.) 깨지기 쉬운... 다가가서기 어려운, 그러나 존재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절그러운 말이다. 또한 그 만큼 순수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랑스러운 비밀이기도 하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서서 나에게 물리는 그런 거다. 비록 spelling 을 외울 수는 없지만 입술 사이로 새어 나오는 바람 소리가 무척 듣기 좋은...

지금까지의 물리 감상은 외에도 물리학과와 내막을 살짝 이야기하자면 스무살 때 난 일주일에 한번씩은 Quiz 아닌 시험을 보아야 했고 지금은 손가락 반뎀 두개의 공식이 천개도 넘는 시험 범위를(절대 한글 아님) 놓고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

• 물리학의 대표적인 과목들은.

역학 : 굴리고 돌리고 뺏기고, 한마디로 사물을 귀찮게 만든다음 어떻게 움직일지 보는 거다. 그리고 한 술 더 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점치는 학문이다. 보통 사람들이 물리라고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이 역학분야이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운동에 관한 부분을 제대로 배울수 있게 된다. (# 아르바이트 할때 유리. 멧모르고 외웠던 공식들도 재정리하고, '이건 어떤 힘때문에 이렇게 미분하고 저렇게 적분해서 나오는 거야'라는 말 할수 있는 좋은 과외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역학시간의 이삼현 교수님 : "그런거 같지요? 실제로 해봐도 그래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도 이상할게 없어요"

현대물리 : 물리학과에 올 정도로 물리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그래 이게 물리야'라고 말할수 있는 최초의 과목이다. 말 그대로 고전 역학을 넘어 상대론과 양자역학의 맛을 보게 된다. 무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냥 듣고 있어도 세상이 열두번도 더 뒤집혀 보일 꺼다.

현대물리의 김충선 교수님: Black body? 검은 물체야. 다했어. 그 다음.

펼쳐 보이려는 CECY도 열의 있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다. 화학과의 구호 ALCOHOL ! 과 과소식지 알콜지를 통해서 화학인들의 생활과 삶을 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화학을 전공하면 4학년의 절반 정도는 전공을 살려 대학원을 가거나 전자, 전산, 건설, 제약, 화학분야 등 취직을 한 선배들을 보면 참 다양하게 분포해 계시다.

여선배님들의 진로를 보면 처음에는 계속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테지만 취직이나 전과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화학과의 학부 과정은 크게 4파트로 유기, 무기, 분석, 물리 화학을 다루게 된다. 짧은 화학에의 지식으로나 간단히 소개해보려 한다. 유기 화학은 유기물을 주로 다루는 분야로 요즈음은 주로 탄소 화합물을 다루는 학문을 말한다. 이는 주로 각 화합물의 구조, 성질, 반응들을 다루며 복잡한 물질을 합성하는 데 응용될 수 있는 분야이다. 천연물의 합성, 의약품 합성, 고분자화학 역시 유기화학의 분야이며 최근에는 특히 생물, 생화학과의 관련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험은 가장 고된 분야로 장시간의 작업과 냄새나는 시약들을 특히 많이 다루었던 것 같다.

무기화학은 위에서 말한 유기물 이외의 것을 다루는 분야로 원자들의 구조, 결합, 분자궤도함수를 다루는 것, 배위화학, 유기금속, 생무기화학 등이 이 분야에 속하고 분석화학은 화학에서 다루는 모든 대상을 폭넓게 관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학문으로 산성비와 같이 우리 환경을 연구하는 환경 분석, 전기분석 등이 있고 가장 폭넓게 응용될 수 있는 분야라 생각된다. 필자 역시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이고 이밖에는 여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다. 졸업 이후에 연구소에서 근무하더라도 여타 전공보다 생활이 비교적 편하고 오래 근무하기에도 여건이 괜찮은 분야로 볼 수 있다.

물리화학은 어떻게 보면 가장 원리적이고 매력적인 분야로 생활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의 근본을 파악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거시적인 세계를 다룬 열역학, kinetics, 미시세계의 양자 화학, 그리고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통계역학 모두가 물리화학의 분야이다. 또 구조 분석에 필요한 분자구조론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간단한 실험을 가지고도 정말 중요한 원리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과목으로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멋져보였다. 설명이 잘 되었을까 모르겠지만 우리 후배들이 화학을 많이 전공하고 선배들에게 물기에 어려움이 있고 한테 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 하나의 선택-내가 느낀 이야기

지정학과 92학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능동적 또는 수동적 선택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의 선택이란 언제나 또 다른 선택의 가능성과 표적을 전제하기 때문에 강도를 얻으려면 어떠한 표적을 '기회비용'이란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언제나 겸손하고 소심 속에서 자랐다고 기억하는 데, 이런 글씨가 있었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희귀의 거대한 스로
실은 표적만 스는 것에 있다는 것이었다. 제비 그런 단어 많아라며 스공했던 것 같다.

5년 동안의 대학 생활을 하면서(나에게는 1년도 오지 않게 되었다.) 나를 따르다니며 고집했던 질문은 왜 사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그리고 자기 내부로부터 이 질문에 대답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대학에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는 적잖은 대답을 찾지 못했었다. 어떤 그만에 대답하는 내게 어떤 이는 이렇게 답했다. '왜 사느냐 물려서 죽을 용기가 없거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왜 사느냐, 살의 의미는 무엇이고 나의 존재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하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대해 해결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대학 4학년 졸업예정자로서 졸업 오 될 해에 먹고 살아가는 길을 서둘러야 하는 처지가 되어있다.

어디 학문의 견당아기를 표기만 오늘날의 대학에서 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취업에 보장된 학교에 학생들을 다모아 물러난 것이 이를 입증하는 단적인 현상이다. 폭풍하는 대학 졸업자들로 인해 스승의 군영이 깨어진지 오래이며 -상대적으로 고용외의 직주는 오래를 토대시 대학원을 들어면서 겪었던 것과 유사한 슬픈 경험의 상 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어떤 급박한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오는 많은 오빠들, 동생들, 선배들 그리고 가족들 에게 아직 별다른 명확한 답을 하지 못 했다. 그런 나에게 한 오빠가 '졸업하고 뭘 하실건지, 언니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써주세요'라고 부탁했을 때 참 답답했다. 4학기 2학기까 되면 여겨져서 쓴다는 똑같은 질문이 풍기는 것도 역시 내 글로 시작하지 않으니 말이다. 나니 또는 내오빠에 나와 비슷한 세대에 있을 줄임 오의 진로를 걱정하는 많은 오빠들에게 나 별로 할 줄 모르겠다. 나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결코 한바탕 하면 선택의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줄일 모에 모
것을 할 것이냐 그만할 텐 노냐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된다. 그 가능성들에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니 그
그렇게 나열하지는 않겠다. 그 가능성들을 앞에 놓고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 선택이란 다른 가능성들의 표절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결정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이다. 살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듣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신다운
것은 대단이 거변적이고 예측을 불어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일을 내다봐 볼 수 없는 미래의 처지에서 알 수 없는 것이라 하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나는 감이 심을 목표를 설정하는 오해를 보려고 있는 것이다. 일단 내가 추구하는 것과 대항의 방향을 잡고나면 선택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일단 선택을 하고 나면 우리는 그같은 오해를 극복한다. 그러나 극복이라는 것이 언제나 보정적 의미로만 비추일 여하는 없다. 생각해보면 묘한 한 자오란 의미이다. 극복이 있을때 자오도 존재하는 것이다. 오히려 선택으로 인한 극복이 너무 비열을 뵈는 과감히 벗어버려야 해도 좋은 것이다. 그 때는 또 다른 선택의 가능성들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또 지금과 같은 대응으로 선택을 할 것이며 그러다서 심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내가 말 스 있는 말의 개념이다.

요즘 노객들은 강들을 그제 순간 순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았다. 오백개 보람찬 글은 어떻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작 이
런 정도의 글을 그적하면서 여러분 동안 정력(?)의 고초임을 언변으로서 먹어이다.

Σ ≥ 수학과 대학원 ∫

[4]

김우영 (수학과 92학번, 석사 2학기)

정소양 (수학과 94학번)

☺ 언니는 어떻게 대학원을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 무엇보다도 내 전공에 대해 좀더 깊이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취업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는 면도 없진 않지만, 우리과의 경우 특별히 대학원을 나온다고 해서 학부 때보다 취직이 잘 된다거나 하지 않아서, 대부분은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와요. 3학년 때인가 4학년 초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수학과를 다녔지만, 수학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더 안다거나 하는 다른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 몇 명이나 뽑게 됩니까?

: 우리과는 다른 과에 비해 많은 인원을 뽑아요. 17-18명, 거의 20명 정도를 뽑게 되지요.

☺ 장기원 기념관에 있는 연구실과 과학관에 있는 연구실은 다른 점이 있나요? : 아, 그건 공간 문제 때문인데, 서로 교대로 바꾸면서 지내요.

☺ 다른 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부나 수업 외에도 일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과는 어떤가요?

: 그렇지는 않아요. 선생님들이 일을 시키거나 하는 일도 거의 없어요. 대학원에 와서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자기 공간에서 공부하면서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과 경우 일이라면 조교를 하는 정도예요. 조교는 1학기부터 하게 되는데 한 과목 당 30만원 정도씩 장학금을 지급받아요. 2-3학기는 두 과목 이상씩 되기도 하는데, 같은 과목을 맡을 경우는 훨씬 수월하지요. 그리고 우리과는 미적분이 있어서 조교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니까 대부분 한 과목 이상은 맡아요. 그리고 장학금 이야기를 좀더 하자면 우리과는 다른 곳에서 일이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장학혜택이 있지는 않아요. 조교하면서 수업 시간 준비하는 일은 다시 공부할 기회도 되고 해서 좋아요. 후배들 보는 일도 좋고...우리도 다 아는게 아니니까 문제 질문을 받으면 늘 긴장하게 돼요.

☺ 언니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 나는 집이 먼 편이지만 매일 7시까지 학교에 와서 수영을 하고, 공부하고, 수업에 들어가고 밤에 집에 가게 되지요. 일과는 언제나 비슷해요.

☺ 바쁘실텐데 수영을 매일 하세요?

: 공부하는 데 건강은 필수 조건이지요. 바쁘다고 하지만 자신이 하는데에 따라 얼마든지 여유를 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와서 좋기도 하구요. 후배들에게도 꼭 운동은 하나 이상씩 하고, 건강 관리에 늘 힘쓰라고 말하고 싶어요.

☺ 대학원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 보통은 계속 공부를 해요. 요즘은 많지 않지만, 유학을 가기도 하고, 대기업이나 연구소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계속 생각 중인데 여러가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 대학원에는 여학생들이 많은가요?

: 예, 특히 우리과가 이과대에서 많은 편에 속하지요. 그리고 우리과 대학원에는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오는데 여대 쪽에서도 많이들 오지요.

☺ 대학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 아무래도 선후배 관계라 편하지요. 또, 다른 학교에서 온 사람들과도 처음에는 서먹해도 시간이 지나면 차츰 편하게 지내요. 다들 좋으신 분들이예요.

☺ 수업이나 논문 작성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 수업 내용은 학부 때 배우던 것을 심화하여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미기, 대수 같은 과목을 학부 때에 좀 열심히 해 둘 걸 싶어요. 세미나 같은 수업도 있어서 자기가 발표하기도 하구요. 논문은 4학기 때 쓰는데 그 때 주로 전공 분야가 결정되지요. 이후에 교수님께 논문 주제에 관한 지도를 받지요.

☺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 학점을 잘 받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수학과에 들어왔으니 수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나가겠다는 생각으로요. 조교하면서 보면 후배들이 정말 공부 안하고 게으름 피우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모두들 수재 소리 들으면서 공부했을 텐데 말이에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다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닐 때에는 더 그렇지요. 열심히 생활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대학원 와서 여행을 갔는데 배울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로를 결정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꼭 학문의 길로 대성하겠다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건이 된고 생각이 있다면 대학원에서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해요.

◆ 지질학과 대학원 ✕

한소라 (지질학과 92학번, 석사 1학기)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지질학과 대학원 지하수 연구분야에 계시는 소라 언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대학원에 가게 된 주된 동기는 무엇이었어요?

: 가장 큰 것이라면,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취업을 한다 해도 얼마나 버틸지도 의심스러웠고, 내 직업으로 만들수 있을지도 그랬고, 마땅히 갈만한 직장도 떠오르지 않았고.. 하지만 공부는 평소에도 꼭 하고 싶었던 것이어서. 그래서 어디 회사도 알아보지 않고, 당연히 원서도 써보지 않았지요. 이번 가을학기부터 들어온 셈인데, 원래는 환경파트를 생각하고 있어서, 환경대학원을 지원할까 했지요. 그런데 지질학과에 지하수의 오염도등을 연구하는 파트가 생겨서 이쪽으로 들어오기로 마음을 굳힌 거였어요.

㉡ 대학원에 가서 겪었던 여러가지 이야기좀 해주세요.

: 대학원 합격소식을 알려주던 선배가 "축하한다"는 말 뒤에 "환상을 깨라"는 말을 끝 하던게 기억이 나요. 난 왜 그런말을 할까 그냥 넘겨버렸는데, 직접 대학원에 와서 겪어보니 그 선배의 말을 이해할수 있더군요. 전 대학원에 가면 학부 때 못했던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 도서관에 박혀서 이책, 저책 들쳐보기도 하고. 그건 아마 대학원에 오지 않은 누군가가 한번쯤은 생각하는 환상이겠지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방에는 외부 용역이 많이 들어와요. 주로 시나 도청에서 연구자료에 대한 심의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쪽으로 field를 나가기도 해요. 보통 조사를 나가면 밤샘 작업을 하거나 2-3일쯤 외박하는 것은 예사죠. 물론 실제 조사를 나가면서 많이 배워요. 하지만 용역이 과도하게 많아져서 자기 공부를 잘 생각할수 없게 되기도 하지요. 또 저희 방 교수님이 참 활동적인 분이시라, 지금 어느 학회의 회장을 맡고 계세요. 대개 학회원이 500여명이 되는데, 그래서 같은 방에 있는 친구들과 저도 그 일을 자주 돕지요. 아예 처음부터 그 학회의 간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회계담당을 맡고 있어서, 하루에도 여러번 은행에 다녀올 때가 많아요. 학회원들에게 소식지나 초청장등의 발송, 등기신고 등을 다 우리가 해요. 과외 업무가 많은 편이지요. 강물방은 우리에게 비

하면 순수과학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쪽에서 우리방을 보면 취업회사라고 할 정도예요.

지금은 정말 제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이걸 여자 남자 구분할 것 없이 같은 방을 쓰고 연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의 공통된 소망이지요. 정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제 위로 박사 과정까지 한 여자 선배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앞날을 헤쳐나갈지 벌써 막막하기도 해요. 대학원까지 졸업한 여자를 좋다고 받아줄 회사는 거의 없잖아요. 고학력 여성은 까다롭기만 하고 말 많다고요. 그래서 저는 꼭 졸업 후에도 연구소 등으로 가서 공부를 계속할 생각이예요. 지금은 유학을 가셨는데, 여선배님 중에 제가 대학원을 가는 걸 반대하신 분이 있어요. 그 선배님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느낀건데, 여학생은 아무래도 힘들다는 거지요.

보통 field를 나가면 산 속에서 텐트를 치고 밤새 측량을 해야할때도 있어요. 그 언니가 field를 나갈때, 언니 외에는 다 남학생이고 교수님도 남자라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참았대요. 다시 아래 숙소로 올때까지요. 그리고도 여학생들은 교수님께 혼이나면 눈물을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되지요. 교수님은 그러고 나면 다시는 연구나 일을 안 맡기세요.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field를 나갈때도 당당히 자기 말을 할수 있어야 해요.

㉢ 대학원 졸업 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 첫째로 연구소로 가고 싶지요. 그렇지만 연구소에 계시는 분과 이야기를 해보면 글썽 하며 웃어요. 아무래도 힘들다는 거겠지요. 그래도 다행인게 제 지하수파트에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이 있어서 그쪽으로 제 연구의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건 지금까지 있었던 분야와 다른 새로운 분야예요. 대학원에 오면 알게 되는데 연구분야가 학부생 때 생각하고 있는것 처럼 고정되어 있는것이 아니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분야가 아주 많이 쌓여 있지요. 그러한 정보가 학부생들에게 잘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걸 알고 온다면 대학원에 와서 겪는 시행착오도 적을 것인데, 지질학과가 응용되는 분야도 참 다양해요. 건축에 응용되는 것은 당연하고,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쓰는 종이에 돌(점토)이 들어가요. 화장품에도 쓰이는것은 유명하니까 잘 알겠지요. 그래서 여러 분야의 진출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지요. 주로 진출할수 있는 석유개발공사나 토지개발공사 등의 공사는 여학생을 전혀 뽑지 않아요. 1차 서류에서는 다 뽑아주지만 2차 면접에서 떨어뜨리고 말지요. 1차 서류에서는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떨어뜨렸다가 말을 들으면 안되겠고,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때는 여학생이라는 것 외에 다른 핑계를 달 수 있잖아요. 공사는 아직 여자가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 사실 인터뷰에 응하기 전에는 제가 무얼 잘했다고 인터뷰를 할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었어요. 앞으로도 제가 후배들을 위해 해 나가야 할 일이 많이 있지요. 후배들이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대학원의 어려움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결정하는 각오가 필요해요. 그리고 대학원 졸업 후에는 다른 분야 회사의 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감안해 주었으면 하고요.

하지만 여자 후배들이 많이 대학원에 와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함께 모여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여학생이 느끼는 불편을 함께 고쳐나갈 수 있겠지요.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헤치고 나갈수 있는 강인함과 함께요.



00τ◆ 대기과학 대학원

선상희 (전문대기과학과 91학번, 석사4학기)

설경희 (전문대기과학과 95학번)

☺ 몇 명 정도를 뽑나요?

: 한 학기에 7~8명 정도를 뽑아요.

92학번부터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공군, 기상청의 위탁 교육자들도 많아요. 오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교수님들이 인원을 눌러 놓지요.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면 대부분 뽑아 주려고 하세요.

☺ 시험 과목은 뭐예요?

: 전공은 대기역학, 분석, 구름 물리, 복사 4과목이에요.

영어 시험은 두번만에 붙어도 돼요. 조건부 입학이 있어서, 학과 시험에 합격한 후 5월쯤 다시 영어시험볼 때 합격하면 되거든요.

☺ 그러면 대학원 시험만 잘 보면, 학부 때의 성적은 별 상관이 없나요?

: 성적은 박사, 유학, 입사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더라도 좋은 편이 유리하겠지요. 그리고 특차인 경우는 더욱 그래요. 이번에는 특차 시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차인 경우는 성적을 주로 보고 뽑아요. 면접할 때 전공 관련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정말 부끄럽지요. 나도 특차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특차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못했나?(웃음)

☺ 장학금이나 연구비 지원 상황은 어떤가요?

: 박사 과정은 연구와 일이 힘들긴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좋아져서 월 50만원의 연구비를 받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져서 월 100만원까지 연구비 지원이 온다고 하더군요. 석사 과정은 월 20만원의 연구비와 등록금 중 반 정도는 장학금(조교 장학금)을 받고, 교육부 장학금도 한학기에 40만원이 있어요. 석사과정 연구비도 월 30~35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마지막 학기에는 논문 장려금으로 50만원을 주고요. 후배들이 들어올 때면 더 좋아지겠지요. 지금도 점점 나아지는 추세예요.

㉔ 대학원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세요?

: 선생님마다 방 순서대로 간단히 말해줄게요.

노의근 교수님- 해양 대기 접합 GCM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사 컴퓨터 프로그램화 하는것). 우리 학교에는 연우 GCM이 있는데 대기만 고려한 것인데 해양의 효과를 접합하는 일이지요. 해양 혼합층, 유체역학을 주로 하시지요.

이승만 교수님- 은퇴가 얼마남지 않아 강의를 주로 하세요. 구름 미세 물리 쪽이고, 제자는 거의 받지 않으세요.

김정우 교수님-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시고, GCM 개발 총책임자세요. 대기역학을 하세요. 아라카와 슈블트 SCHEME으로 유명한 아라카와의 제자시지요. 아라카와 김정우 스킴이 될 수도 있었다는 뒷얘기도 있지요. 이 방은 박사과정은 일이 많지만, 석사과정은 자유로운 편이라나 보너스도 있고 회식도 많이 한대요.

김준 교수님- 새로 오신 분인데 생물 대기 상호 작용을 연구하세요. 조희구 선생님과 함께 GCM에 생물권을 접합하고 계시지요.

이태영 교수님- 중규모와 대기오염(G7 프로젝트) 화학 모형. 화학과 환경쪽에 관심있으면 여기서 할 일 많겠네요. 선생님께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일찍 출근하시고 늦게 퇴근하세요. 중규모에서 악기상(예-집중 호우, 폭설 등)을 다루시는데 악기상은 하루 전에도 예보가 불가능해요. 토네이도보다는 좀더 큰 규모는 예측 가능해요. 기상청에서 현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많아요. 실제와 관련 많으니까요.

조희구 교수님- 오존, 복사 파트. 퇴직이 얼마 안남으셨어요. 여기서는 관측을 많이 하지요.

전혜영 교수님- 우리과 유일한 여자 교수님이시지요. 중력과 파동이나 SQUALL LINE, 토네이도 등 수리 실험보다는 이론 연구를 위주로 하세요. 발생역학 쪽이지요. 이태영 선생님께서 실제 적용을 연구하신다면 이 선생님께선 왜 발생했는가를 연구하시지요.

㉕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업무도 많나요?

: 돈 많이 준다는 것은 그 만큼 일이 많다는 것이지요. 프로젝트를 많이 맡은다는 것이니까요. 방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워드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1,2 학기는 주로 일을 많이 한다고 봐야겠지요. 대학원 올 때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아닌 취직을 한다는 생각으로 와야 해요. 그래도, 아프면 안 나와도 되는 등 보통 직장보다는 훨씬 편하지요. 취직하는 것 만큼 일한다고 생각하고 와야지, 놀려고 대학원 오면 안돼요. 방학은 없고 7-8일 휴가가 있어요. 직장가

는 것이 자신없다고 해서 대학원 오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직장보다 어려운 점도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못 벌거든요. 연구비라고 나와도 집에 갔다 주거나 생활하지는 못하니까요.

학교에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공부하겠다는 생각가지고 일도 하고 해야지, 학생의 연장이라 생각하고 왔다가는 힘들어요.

㉖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여유는 거의 없는 것인가요?

: 직장인보다는 훨씬 많지요. 그리고 대학생 때보다는 훨씬 없지요. 선생님과 일하다 보면 갑자기 일이 생기고 하니까요. 학부생 때처럼 중간중간 친구만 나고 하는 일은 어려워요. 약속도 취소할 수 있어야 하고, 하지만 그런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면 생활이 힘들 수 있어요. 나도 처음에 뭐가 이러냐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 내가 생각을 잘 못하고 있었던 면이 많아요. SEMI 직장 줌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침에는 누구보다 일찍 와야 하고, 또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공부도 열심히 해야하지요. 오히려 출퇴근 시간이 없으니 선생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면 집에 가기가 좀 망설여지고, 물론 나도 집에 가긴하지만 (웃음) 갈 때도 눈치가 좀 보이는게 사실이에요. 학부생 때보다는 훨씬 불편하지요. 책임도 훨씬 무겁고요.

㉗ 대학원 졸업하면 어디로 진출하세요?

: 주로 연구소를 많이 가요. 기상청도 가는데, 어느 곳이나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정식 연구원이 아닌 위촉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름테면 회사의 인턴사원 같은) 과정을 거친 뒤 정식 연구원이 돼요. 기상청에서는 현업이 아닌 연구사라는 직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학부 때보다 대학원에 가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던 것을 아하 이런 것이구나 하고 다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박사과정에 가서야, 배운 것과 실제 일을 결합할 수 있지요. 말하자면 석사과정은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요새는 박사과정을 밟지 않으면 석사과정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석사과정 동안에는 대학원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는 과정이지요.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했다가 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분위기를 익히는 과정이라고나 할까요. 2년이면 짧은 기간이에요.

내 생각에는 박사과정에 들어올 마음을 가지고 석사과정에 입학해야 할 것 같아요. 석사과정 마친 뒤 전공을 살려 기상청에 취직하더라도 많은 기상청 분들이 퇴근 후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계신 걸 보면 요새는 전공을 살리려면 박사과정도 점점 필수(?)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석사 때 모든 공부를 끝내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건 더 조급해질 뿐이에요.

기상청 장학금이 있는데 신청하는게 좋아요. 게시판도 잘 보고 다니구요. 나 중에 안가면 돈 물어내면 돼요. 지금은 기상청 가는 게 마음에 안들지도 모르는데, 기상청만큼 좋은 직장도 없을거예요. 기상청이 점점 규모도 커지고 기상 주식회사라는 것도 생기고 하면서 인력도 많이 필요해 질 거예요. 기상 주식회사 등에서는 석사학위는 필수로 여긴다니깐요. 기상청에서 몇 년 일하면서 실전 경험을 하다가, 거기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하면 등록금 다 대주고 대학원 공부도 할 수 있게 해 준대요. 외국 연수 기회도 많고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좋은 조건도 있잖아요. 출산 휴가, 육아 휴가나, 출퇴근 시간, 토요일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도 말이에요.

☺ 기상청에 가기 힘들지 않나요?

: 기상청 가려면 대학원 나와서도 힘들지요. 그래서 기상청 장학금을 신청하는 거예요. 한 명밖에 주진 않지만요. 학비도 대주고 취업도 보장되는 거잖아요. 해보는게 낫지요. 신청이 2학년 2학기일꺼예요 아마. 나랑 같이 대학원 들어온 수미도 그 경우예요.

☺ 언니는 졸업 수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나는 계속 공부를 할 생각이예요.

☺ 참 결혼하신다면요? 축하드려요. 우리과 박사과정에 계신 선배님과 결혼하신다면 공부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우리는 외국에 나갈 예정인데, 각각 post doc. 과 박사과정을 계속 밟을 예정이에요.

☺ post doc.이 뭔가요?

: 학생이 아니라 연구소 같은 곳에 취직해서 같이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쳤으면 post doc.으로 외국에 나가 공부해 보는 것이 좋다고들 해요.

☺ 힘들실 것 같은데, 특히 가사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아직 영국으로 갈지 미국으로 갈지 결정을 못했어요. post doc.은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나도 공부할거니까 일이 많긴 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가사일은, 잘 되겠지요. 너무 낙관적인가요? 라면만 먹고 살진 않겠지요. (웃음)

: 다른과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과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다거나 혹은 답답한 면이 있으신 것 같긴 해도, 그런 면 때문에 돈 문제 등에 있어서는 철저하시지요. 학생들에게 잘 해주시려하고 연구비도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 주시려고 하세요. 다른 학교 대학원보다도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는 어떤가요?

: 우리과에도 학부, 석사, 박사를 다 다른 과에서 나오신 교수님이 계신데, 별로 좋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과 전공을 계속 하려면 아무래도 우리 과에서 계속 공부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 유학은 많이 가나요?

: 언제부터인지 대기 파트는 박사과정까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조건이나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도 하고, 나도 될수 있으면 우리과에서 박사과정도 계속하고 싶어요. 외국 나가는 것 보다 편하잖아요. 또 외국 대학에서의 장학금도 많이 줄었다던데.

☺ 대학원에 여자분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 박사과정까지 합쳐서 지금은 6명이에요. 다른 학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지난 학기까지도 10명이 넘었는데, 많이 졸업하셨지요.

☺ 가고 싶은 선생님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 학생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많이 물리지 않는다면요.

☺ 대학원 연구실이 아주 좁던데요?

: 전해영 교수님이 새로 오시면서 대학원생이 사용하던 방을 하나 뺐어요. 제 2 과학관이 생기면 천문 part는 남지만 우리는 옮겨간다고 하더군요. 옮겨가면 사정이 훨씬 나아지겠지요. 95학번들이 입학할 때쯤 완공된다던데.

☺ 취직할 때 여성이라서 어려움을 겪는 점이 많은가요?

: 어느 분야에서나처럼 마찬가지지요. 우선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들어가서 승진이 어렵기도 하고요.

☺ 대학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 학점도 좋은게 좋겠지요. 나도 공부 열심히 안 한것 같은데...(웃음)

: 시험보고 나면 다 까먹잖아요. 참, 족보 다 모아서 정리하고 예상 문제 정리하고 그런 것도 했 었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시험에서 몇 개 더 맞기 위해서라기 보다, 족보에 나오는 것만 다안다고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알면서도 다 못외우잖아요. 전공책 하나만 다 알 수 있을 만큼 공부했다면 그 사람은 그 내용에 있어서 만큼은 대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새는 기상학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많이 하고 해서 컴퓨터를 못하면 안되요. (3,4 학년 되면 다들 느끼겠지만) 물리나 화학처럼 닫힌 계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컴퓨터 모사를 주로 많이 하지요. 전산실에 비싼 컴퓨터들도 많아요.

대학원 시험 준비는 4학년 여름 방학 때부터 영어와 전공 공부 시작하면 되고, 평소에는 전공공부에서나 학점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분야의 교수님이 끼리는 정도만 안되면 되는거 아닐까요.

㉠ 전공과목은 어떤 것을 들어야 하나요?

: 전공필수는 물론 들어야 하고, 유체 역학도 들어 놓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관심있는 분야의 과목을 들어면 되겠지요.

㉡ 조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보통 지도교수님께 맡게 정해져요. 2, 3학기가 주로 맡게 돼요. 1학기가 하기도 하는데, 4학기는 논문을 써야 하니깐요.

㉢ 언니는 언제 대학원 갈 것이라고 결정했어?

: 나는 입학한 이래 한결같이 대학원에 갈꺼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가야한다고. 부모님께도 미리 주지를 시켜드려야해요. 계속 학생인 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집안일 이것저것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친구들 직장다 나서 돈벌어 오는 것 보고 너는 취직 안 하나고 물어보실 때도 그렇고. 미안하기도 하고.

㉣ 마지막으로 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 더이상 나는 학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게 중요해요. 이것이 대학원 생활에 적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놀지않는 한 이보다 편한 일은 없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선후배 관계가 우선이니 경쟁관계가 우선시되는 다른 직장보다 인간적이잖아요. 진로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컴퓨터과학과 대학원

김호선 (컴퓨터과학과 92학번, 대학원 석사 2학기)

김소희 (컴퓨터과학과 95학번)

㉠ 언니가 계신 연구실은 어떤 곳이에요?

: 병렬처리 시스템 연구실로 간단히 말하자면, 하드웨어 쪽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교수님이 세 분 계신데 우리과가 공대로 가면서 앞으로 분리될 지도 모르겠어요. 지도 교수님은 양성봉 교수님이세요.

㉡ 연구실 방에 대학원생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우리방에는 21명이 있습니다. 탄 방도 사정은 마찬가지로이예요. 지금은 매우 좁은 상태인데 공대로 옮겨가면 나아질 것입니다.

㉢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잔일도 많다고 하던데..

: 과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할 일(잔심부름)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외국의 경우 연구실 당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한명씩 있다고 하는데 부럽기도 하지요. 우리 교수님은 별로 그러시지 않는데, 연구실마다 교수님에 따라서 사정이 약간씩 다르다고들 하더군요.

㉣ 그러면 교수님께 연구 외의 일 때문에 불만을 말씀드리거나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 모두들 예전에도 그랬으니 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아무래도 학생 때와는 다른 처지이기도 하니까. 이런 사정 때문인지 어떤 사람들은 취직하기 전에, 대학원에서 연구도 하고 (회사에서 하는) 비슷한 일도 해보아서, 회사의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더 편하다는 말도 합니다.

㉤ 대학원에서는 몇 명이나 뽑나요? 또 그 중에서 여학생 수는 많은가요?

: 내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원수가 그리 많지 않았으나, 요새는 늘어나, 교수님 당 한 명 이상씩은 뽑아요. 그리고 내가 들어올 때는 여학생이 3명 들어왔는데, 예전에 비해 많은 편이었어요. 우리 학번 때까지만 해도 우리과에 여학생이 별로 없었고, 학부 졸업 후 취직한 사람도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학부 졸업 후나 대학원 석사 과정 졸업 후 취직할 때, 물론 부서나 월급이 다르긴 하지만, 다른 과처럼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점도 있어요.

☺ 우리과가 공대로 가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 아직 장소가 바뀌지 않아서 그런지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앞으로는 순수과학 쪽에서, 기업이 원하는 대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하는 것으로 변화되겠지요. 아무래도 공대에 있으니, 외부에서 바라는 것도 달라질 거구요. 교수님 중에는 수학 공부하시다가 전산으로 바꾼 분들도 많으신데, 요즘은 교수님들이 새로운 응용 분야를 만들고 하시느라 많이 바쁘십니다. 그래야 프로젝트도 딸 수 있고 하니까요.

☺ 대학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해요?

: 시험은 영어와 전공과목입니다. 전공 필수 과목이니 대부분 1,2 학년 과목이 되겠네요.

☺ 조교 배당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석사 2, 3학기 학생들이 주로 맡아요. 문과대 쪽에서는 지명식이라고 하나, 우리는 지도 교수님이 가르치는 여러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지요. 주로 쉬운 과목-과제가 적고 인원도 많지 않은 과목-을 높은 학기 선배들이 맡지요.

☺ 자료구조론 같은 것은 서로 안할려고 하겠네요?

: 아무래도 그렇지요. 그래도 양성봉 교수님만 그 과목을 가르치시니 다음 학기에는 내가 맡게 될 것 같네요.

☺ 그러면 조교 장학금도 있어요?

: 한 학기에 70여 만원 정도씩이었는데, 바뀔 수도 있어요.

☺ 대학원 등록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 한 학기 240 여 만원이고, 내가 입학할 때는 입학금을 포함하면 300만원 가까이 되었어요.

☺ 선배님들은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요. 아까 말씀하신 조교 장학금 외에도, 다른 곳에서 나오는 장학금 같은 것은 없나요?

: 우리과는 산학 연계가 잘 되어있는 편이라, 삼성이나 LG 등에 신청을 하는데, 특히 남학생들은 많이 연계를 해요. 박사과정에 진학하지 않는다면, 병역 문제도 있고 해서 어차피 대기업 방위산업체에 들어가야 하니 미리 T.O.를 받아두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외국인 기업은 병역을 마친 후에야 갈 수 있으니까. 산학 연계를 하면 등록금과 매달 30만원씩 보조금이 나오게 되는데,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합격됩니다. 박사과정에 들어가거나 좀더 조건이 좋은 곳으로 들어가려면(여학생들 경우 근무 환경이 나은 외국인 회사로 진출하는 이가 많다), 졸업할 때 그 돈은 다 갚아야 해요. 기업이 학생 지원 장학금으로 내놓는 돈이라고 하지만, 후배들이 다시 그런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꼭

갚아야 하지요. 지금 나도 LG와 연계를 하고 있어요. 또, 박사 과정에서도 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 논문을 제출하거나 하여, 능력을 인정받으면 훨씬 많은 돈을 대주는데, 등록금은 2년 간(박사 과정은 2년 이상 학기는 등록금이 6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지원되며, 그 이상 기간은 회사의 직원 대우로, 보너스를 제외한 본봉을 줍니다.

☺ 우리과 대학원의 경우 학비 걱정은 없는 편이겠네요.

: 다니는 동안에는 학비 걱정은 별로 없어요. 산학 연계가 되지 않은 사람도 과 프로젝트 연구비에서 등록금을 지원 받아요. 프로젝트가 많은 멀티미디어실에서는 박사과정의 경우 매달 50만원 이상씩 연구비로 지원을 받지요. 그래도(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면서 경제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집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가요?

: 그렇지 않는다면, 과외를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한데, 어차피 공부하겠다고 결심한 바에는 사정이 된다면 안하는 편이 낫겠지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대학원 졸업 후 산학 연계를 한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예외지만, 박사과정에 진학하거나 다른 회사로 가면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다 갚아야 하니 독립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 취직을 했으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대학원은 돈을 내고 다니는 것이니, 아무래도 어렵지요.

☺ 박사과정까지 끝내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 대부분은 교수직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석사과정을 마치고 기업에서 4년간 직접 일을 해보는게 더 나을 것입니다. 박사가 되면 아무래도 연구분야는 더 좁혀지는 것이니까요.

☺ 유학은 많이 가지 않나요?

: 요즘은 추세가 바뀌어서인지, 국내에서 박사 과정까지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새로 오신 교수님은 우리과 84학번이신데, KAIST에서 석.박사를 하셨어요. 물론 외국에 Paper를 많이 내셨지요. 요즘은 유학을 가더라도 좋은 학교로 가야 합니다. 아니면 돈도 많이 들고 인정도 받지 못하지요.

☺ 그렇다면 석사 과정이 끝나면 대부분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 예를 들어, 학부를 졸업하면 그냥 삼성전자에 취직을 하지만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삼성전자 기술원 등에 취직을 하는 것이지요. 출퇴근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

㉔ 졸업한 여자 선배들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 취직을 했거나, 유학을 준비 중이에요. 박사 과정으로 곧바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생긴 지 얼마되지 않은 과라서, 박사 과정을 졸업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㉕ 친구들이 하는 농담 중에 교수님께서 일을 박사 과정에게 미루시면, 그 다음은 석사 과정, 또 학부생에게로 내려가 다시 역과정을 거쳐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나요?

: 우스개소리로 코끼리 냉장고에 넣기 프로젝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가끔 그런 일이 있기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중요한 일은 박사 과정에서 합니다.

㉖ 보통 언니의 하루 일과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 학교에 일찍 나올수록 좋겠지요. 기본적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정도까지는 학교에 있어야 해요. 교수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등교 시간에 관여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일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으니, 잡일을 예로 들자면, 만약 팩스를 수백통을 보내야 한다면 복사를 한다면 할 때 연구실에 있는 사람만 일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거기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되죠.

㉗ 시간적 여유는 많습니까?

: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꼭 아침 8시까지 나오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방학 때는 수업도 없으니 어떤 것을 배우려 한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니까 문제이지만.

㉘ 선배들이 피곤해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힘든 점이 많은가요?

: 잡일 때문일거예요. 그런 일이 한꺼번에 많으면 더욱 그렇지요. 교수님들은 이 일 하고 나서, 저 일 하면 되지 하시지만,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쉬기도 해야 하고... 이해를 잘 못해주시기도 하시지요.

㉙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과목을 듣게 됩니까?

: 대학원 석사 과정 졸업할 때까지 총 32학점인가를 들으면 되는데, 학기별로 4, 3, 2 학점 정도를 듣고, 그외 연구과제 실습 등이 있어요. 내용은 학부 때 배우던 과목의 뒷부분을 배우기도 하고, 교수님 논문 Topic을 요약해 배우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연구실의 프로젝트를 수업 과목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다른 방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지. 아직 체계가 완전히 잡힌 것 같지는 않아요.

㉚ 여러가지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 학부 때는 하고 싶은 것, 이것 저것 많이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앞으로 대학원 입학 문에 들어지는 점도 있겠지만, '대학원 가려면 학점을 얼마만큼 받아야 한다' 라는 식의 생각은 중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학교 대학원을 가든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요즘 대학원 분위기가 공부나 순수 연구보다는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대충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후배들이 각자 원하는 바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공을 살리고 싶다면, 꼭 대학원에 와서 공부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μ 화학과 대학원

우미혜 (화학과 90학번, 대학원 졸업 후 대우 고등기술 연구소 연구원)

제가 진로를 대학원 진학으로 생각한 것은 우선은 공부가 재미있었던 탓이죠.

화학에 대한 막연함이 미쳐 풀리기도 전에 졸업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좀 더 공부하고 취직을 해도 늦지 않겠다 싶었어요.

화학과 사람들과 화학이라는 전공을 무척 좋아했지만 막상 대학원에 진학해보니 학부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던 것과 차이가 너무 크더군요.

이런 생각은 아마도 화학과를 온 사람들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 ...

학부 과정에서는 주로 책을 가지고 이론을 공부하는 반면에 대학원의 생활이라는 것이 실험을 통한 연구 활동이 주가 되어서 주로 우리들 사이에서는 "노가다" 라고도 표현되고 대학원 생활 한동안은 내가 그려오던 모습과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더군요.

내가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는 우선은 체력적인 면이 가장 크게 탈렸어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욕은 충천한데 막상 몸이 따라 주지 않는 부분 말이에요. 밤을 세워서 지켜봐야 하는 실험들이나 아침 일찍부터 저녁 11시까지의 하루 생활들이 좀 고되죠. 대학원은 마땅히 학교 생활에 비기기보다는 오히려 어정쩡한 사회 생활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대학원 생활을 하다보면 화학과 만의 문제일지도 모르겠는데 교수님과 대학원생들 간의 관계를 꼽을 수 있겠어요. 교수님과 대학원생들 간에 이렇다 할 대화나 관심없이 지내는 것과 대학원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리저리하기를 요구하는 교수님들의 권위주의적인 부분에서 무척 힘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학원생들 간의 인간 관계도 중요한 면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는 공간 문제가 심각하여 실험 환경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데, 지나치게 좁은 실험실 공간 속에 여럿이 생활하게 되면 서로 껴게 되는 어려움, 서로가 알게 모르게 주는 스트레스로 인간 관계 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리 나라의 몇개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이 실험 기자제 부분에서 열악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우리 나라의 실정이어서, 이 정도마저도 고마운 것이 아닌가 하는 말도 하게 되죠. 산학 협동에 대해서도 대학원생

들이 학문을 좀더 깊이 연구한다기보다는 기업의 프로젝트를 싸게 처리해주는 부분을 비판할 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저런 기계를 들고 장학금도 지원하는 등의 당장에 좋아지는 부분에 오히려 찬성하는 편입니다.

각자의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서 직업을 갖는 것이 오히려 직장 선택의 폭을 좁힐 수도 있어요.

학부의 막연하고 광범위한 진로 선택에 비하면 한 차원 높여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 같은 분야에서 사회 진출해 있는 선배들의 도움도 받기도 하지만요. 이 분야의 일을 계속하고 직업 선택에서도 이쪽으로 계속하겠다 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오히려 석사를 마쳤다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니예요. 실제 대우 면에서 학부 마친 사람과 석사와는 별반 큰 폭의 차이가 없고 특히, 여학우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실험 환경에 있기에 그곳에서 오래 버텨 내기가 쉬운 일 만은 아니죠.

요즘의 연구소가 공장하고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출장도 잦고 분위기가 좀 거칠거나 혹은 대학원 생활의 연장으로 생각하면 참조가 될 듯 싶어요.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더 고학력의 인력을 요구하는 분위기가이기도 하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가 전공 이외의 다른 것이 될 경우는 석사라는 학위나 나이면에서 오히려 제한 요소가 되고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짧은 글을 통해 마지막으로 대학원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부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로는 앞서도 말했듯이 가장 먼저는 후배들이 건강했으면 하고 요즘 들어 대학원을 육성하려는 분위기로대학원 중점 대학으로의 변화로 인해 많은 학부생들이 예전보다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시간이 좀 많이 있는 학부 과정 때에 기초적인 지식을 쌓아 두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과 교수님

- 전해영 교수님(천문대기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과 함께 -

마기영 (천문대기과학과 93학번)

임지연 (천문대기과학과 95학번)

교수님의 경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연대 81학번이었으니까.. 87년에 석사과정을 거치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91년 5월 박사 과정을 마쳤지. 이후에 나사 연구소에서 93년 1월 말까지 연구원으로 있었고, 93년 2월 귀국 직후 서울대 자연 연구소에 있다가 연세대 지구과학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어. 그리고 96년 3월부터 우리 학교 대기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지.

87년 유학 가기 전에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7월 25일 결혼하고 27일 곧바로 미국으로 갔군. 그 사람은 86년에 먼저 미국에 가 있었고, 나는 석사를 마치고 갔어. 그 사람은 결혼할 때만 잠깐 나온 거지.

학부 때도 유학을 생각하셨어요? 유학 가기 전에 결혼하고 가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학부 때 유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반대를 하셨어. 지금 같으면 반대를 무릅쓰고 갔을 텐데 (웃음). 결혼 생각은 안했던 것 같아. 마침 우연히 만나서, 그 사람도 공부를 계속하는 중이었고..자연스럽게 된 거지.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내가 유학갈 때 결혼할 사람이 가 있는 학교 외에 다른 학교를 가게 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학교에만 지원을 했는데 그 때문에 선생님들께 많이 혼났지.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지만...그건 내 나름의 결단이었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러 학교에서 admission을 받아놓고 하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 질 것 같더라고. 결혼, 학교 문제 등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건 안

■ 선생님만닝 ■

되겠다 싶어 확실하게 했지. 약간 비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 현실 타협을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보통은 석사 때 공부하던 것을 연속으로, 박사 때 더 깊이 해보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데 내가 가려는 학교는 석사 때 하던 문제를 연속으로 할 수 있는데는 아니었어. 내 나름대로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은 들었어. 그 학교는 내 남자친구가 선택한 것이니 말이야. 그런데 우연히도 내 지도교수가 내 연구 과제와 근접한 것을 하는 사람이었어. 운이 좋았던 거지.

선생님께서 전공하신 분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물론 기상학인데, 중규모 대류계, 거리에 대한 이론적 부분과 수치 모델링하는 것이 내 전공이야.

내가 입학할 당시는 계열로 들어왔는데 2학년 때 천기와 지질을 나누고 3학년에 천문과 기상으로 나누어졌어. 들어올 때는 여학생들이 많았지. 나는 처음에 지질을 하려고 했는데 2학년 때 필드나가는 거 보고는..와!, 돌 깨고 메고 다니고 현미경보고 그림 그리고 하는 거 있지? 나는 전혀 적성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천기파트로 왔어. 천기 파트 여학생들이 10명 정도 였는데, 졸업하고는 다 흩어져서 소식을 알기가 어렵지. 영화감독이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대학원 나와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다시 시험 봐서 치과의사인 애도 있고, 기상청 가서 일하다가 얼마전에 대학원에 다시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하더군. 지질학 쪽은 교직 이수해서 대부분 선생님을 많이 하더라.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유학 가서 집안일을 함께 하셔야 했을텐데,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잖아. 이진 나이 차이가 아닌 것 같애. 집안환경 문제도 크고..

나는 이미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공부를 계속하겠다고 결심한 상태여서, 결혼을 안하면 안했지 공부를 그만둘 생각이 없었어.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인지 생각외로 집안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 또 유학 가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점도 있었을 거야. 원룸에서 사는 데 일할게 없었어. 동전 넣고 세탁하고, 카펫 깔려있으니 일주일에 한번씩 청소기로 밀면 되고, (일동 웃음) 하는 것이라고는 밥해 먹는 건데 그건 아무래도 내

■ 선생님만닝 ■

가 좀 낫지. 지금 생각하면 해 먹은 것이라고는 한국 식품점 같은 곳에 가서 김치 만들어 파는 것 사다가 반찬 한가지 더 만든 것밖에 없었어. 거기에는 고기가 싸니까 야채랑 볶아서 해먹고...고기도 냉동되어 소스까지 파니까.. 내 생각에는 시간을 투자할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결혼해서 유학을 가는게 더 좋은가요.

내가 학위를 받기 전까지는 나도 결혼하고 간 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했어. 아무래도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니까. 결혼을 하지 말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항상 그 생각을 했는데, 94년에 reaserch를 하러 내가 다닌 학교에 다시 가 볼 일이 생겼는데 거기서 혼자사는 유학생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 한국 여학생인데 그때가 6년 정도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개가 생활하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내가 결혼을 하고 유학하길 잘했구나 하는 걸 느꼈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싶었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도 그 한 달 간 있으면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좋을지 모르겠을 때가 있더라고. 여기서는 식사나 박사 과정의 학생들끼리 어울릴 때가 많지 않니.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그런데 미국에는 그런게 없어. 아침에 학교 가서 리서치를 하고 하더라도 밥은 각자 집에 가서 먹는단 말이야.

햄버거 같은 것을 먹더라도 누가 가자 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야. 밥먹으러 가자고 말하는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더라. 그래서 스쿨 버스 타고 집에 가서 밥해먹고, 왜냐하면 낮에는 학생들은 주차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차가지고 다시 학교 와서 공부하고...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해야 한단 말이야. 차라리 일이 많고 바쁘면 괜찮은데 시간이 남을 때가 문제지. 거기에도 한국 학생들 중에 처녀, 총각이 있는데 정말 보수적이야. 작은 일 가지고 소문이 나기도 하고 하니까 남학생들은 남학생들끼리 어느 집에 가서 술먹고, 여학생들은 집에서 비디오 계속 보고...우리는 가서 일과가 거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릴 기회도 없어서 유학생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잘 알지 못했는데 94년에 갔을 때보고는 놀랐지. 내가 보기에는 방탕(?)하기 이를 때 없는 거야. 후배가 말하기를 언니는 그래도 결혼을 하고 왔으니 좋았겠다고 하더라. 결혼을 했으니 밥을 하고 집안일 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간도 아깝고 나머지는 공부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 사니까 시간이 많고 하니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자기 생활 조절도 잘해야 학위도 빨리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시간만 계속 가고 진척은 잘되지 않아.

내가 생각하기에 둘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내 유학생화에 단점을 꼽으라고 하면 영어를 빨리 배울 수는 없다. 둘이서 얘기하고 하니까. 혼자 살거나, 한집

에 여러명이 살거나 기숙사에서 살거나 하면 미국인들이랑 함께 생활하게 되니 확실히 영어 실력이 많이 늘겠지.

공부를 계속하려는 여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나도 여학생회 설문결과를 봤는데, 1학년 중 대부분이 교수나 연구직을 하겠다고 했더라. 그러나 절대 쉽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 사회 전반적으로 전문직으로 가면 갈수록 여자들의 입지가 어려워. 은행, 9급 공무원 등은 여자들이 아주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전문직으로 갈수록 만만치가 않다는 거지.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취직을 하겠다고 하면 어려운 점이 많아. 이과대에 여자교수님이 4명인데, 다른 선생님들이 미국에서 바로 오신 경우라 한국에서 2년 반동안이나 지내며 한국 실정을 잘 알게된 내가 그 문제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한 것 같아.

설문항목 중 대학에 여자교수가 적은 이유중에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거든. 여교수가 적은 이유로 결혼으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이야. 박사를 받고 교수가 되는 경우는 우리학교의 경우 POST DOC. 2년은 필수인데 그 정도가 되면 30이 다 넘는다. 결혼을 하겠다 하면 이미 했거나 아니면 보통 안하고 한다. 교수가 되겠다 하는 수준에서 결혼해서이기 때문에 교수가 안되겠다 하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것이다.

내가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될 수 있는데 얘기를 기르겠다고 집에 있다는게 말이 되겠니. 내가 서울대에 있으면서 여러 군데 지원을 했는데 앞에다 대고 여자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곳이 많았어. 아예 경쟁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거지.

여대인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또 우리학교도 선진적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자 교수 숫자가 적지 않나. 대학사회라는 곳이 매우 보수적인 곳이라 여자라는 선입견을 뛰어넘기가 아주 힘든 일이다. 나아져야 하는데, 할당제, 난 아주 적극 찬성이야. 어떤 레벨에 그것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전문직에서 할당제를 도입해서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정당하게 들어와도 할당제로 들어온 것으로 취급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될까. 들어와서 일을 잘하면 될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은 안될 거야. 완전히 문이 모두에게 열려 있어서 똑같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은 한쪽이 전혀 경쟁을 못하는 상태이다. 학부 때 여자라고 학점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 받을 때 여자라고 공부 안하고 그냥 봐줘서 주는 아닌데, 똑같이 학위를 주고서는, 직장을 잡을 때 와서 너무나 큰 벽을 만들어 버리는 건 정말 문제라

고 생각해. 의식이 깨어서 따라오는 것은 100년이 가도 힘들 거야. 적어도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따라오겠지. 미국 대학에서는 흑인, 여성 등을 minority로 해서 어느 정도 비율 이상을 채용하지 않으면 주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적어도 그런 식이라도, 예를 들어 영문과와 같이 반 이상이 여학생일 경우 여자 교수는 1/3은 되어야 한다면 해야지. 남자들이 그러면 자격 미달인 여자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자격이 남아도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나는 이 제도를 적극 찬성해.

의식의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느끼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여전히 고루하더라. 그래도 보통 딸이 공부하는 집아버지들은 깨어있는 편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집에서 자란 남자들은 애들도 그대로 배우더라.

우리애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남자 어린이 나오세요, 여자 어린이 나오세요 하는 거야. 거기서는 남자, 여자 구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애가 커서 의사가 되겠다하면 친구들이 “여자가 어떻게 의사가 되느냐.” 하고 금방 나오는 거야. 우리엄마가 여자도 의사해도 된다고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여자는 간호사만 될 수 있어”라는 거지.

엄마들이 남자애들을 키우면서 바꾸어가지 않는 이상 의식전환이란 정말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나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이 직장을 잡을 때와 잡고 났을 때가 사정이 바뀌어서 그런지 이쪽일도 있고 해서 생각을 자주 못쓰게 돼. 하지만 내가 겪은 어려움이 나로서 끝날 일은 아니고 후배들도 같은 일을 겪고 울분을 느끼게 될 텐데.. 우리가 결집된 어떤 조직을 만들어 압력단체로 작용을 하든 해서 여성들이 조직화된 힘으로 이런 문제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 여성과학자 협회 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곳에서 있는 분들도 자기 일이 있고 거기서 인정받고 해야 하니, 아무래도 조금은 소극적이 되는 것 같기도 해.

여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이나 사고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돼지. 나는 정반대로 생각하는데 내가 서울대에 있을 때 2년동안 강의를 하면서 답안지를 보게 되는데 1,2,3등이 다 여학생이었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앞에 앉아서 노골적으로 화를 내는 남학생들이 있었는데, 내가 2년 동안 서울대에서 강의한 것을 바탕으로 사고의 차이를 보자면 우선 여학생들은 잡다하지 않아. 포인트를 잘 잡고 군더더기가 없이 답안지를 작성한다. 1장이면 될

문제를 많은 남학생들은 다섯장씩 쓴다고. 주변을 맴돌기만 하면서 말이야. 남학생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물론 안 그런 남학생들도 많지. 우리 4학년 중에서도 참 잘하는 학생들도 많아.

한마디로 말하자면 과학을 하는데 여자들이 못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더 낫다고 (내가 본 바로는)말하고 싶어. 특히 자연과학에 있어서는 말이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큰일이야.

선생님 그러면 따님은 평소 누가 돌보세요.

지금은 사람을 두고 있지. 서울대에 있을 때는 시간이 지금보다는 편찮은 편이어서, 놀이방에 맡기고 찾아오고 했는데 지금은 일도 많고 정해진 시간에 데리러 간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해서 입주할 수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봐 주셔. 아이가 크긴 했어도 물론 늘 불안해. 자녀를 키우는 일도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이야. 하지만 둘다를 잡을 수는 없더라고. 사회생활에 가치를 둔다면 일부분 포기해야 할 것도 있어.

자녀분은 언제 낳으신거예요?

나는 계획을 잘 세워서 시간이 잘 맞았지. (웃음) 내가 애를 12월 29일 낳고 2월에 박사 학위 DEFENCE를 했는데 우리아이는 낳은지 한달 되자마자 보육자에게 맡겨졌지. 불쌍하지.

애를 배고 있는 동안이 더 편했던 것 같아. 낳은 다음이 더 문제네. 그동안 제일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애. 낳기 전날까지도 밤 12시까지 일하고 그날 아침에도 일하다가 병원에 들어갔을 정도니. 우리애가 성격이 좀 급한데 그게 우리 남편은 태고 문제래. 내가 임신 중에도 계속 writing하고 컴퓨터 앞에 매일 앉아 있고 했다고. 어쩔 수가 없지. 여러분도 공부를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숫자가 점점 적어지는 위치에 가게 되면 남자들은 똑같이 해서는 안된다는 스트레스를 받아. 얘기를 가졌다 하면 남자들은 봐줄 지도 모르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보이면 안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힘들어져. 그렇게 일을 해내야지만 사회에 인정을 받으니까 여자들이 참 안됐지.

애가 아파서 남자가 왔다갔다하면 다 봐주면서 여자가 그러면 금방 얘기가 되거든. 설문조사에서는 남학생들이 장래에 부인을 돕겠다고 많이 이야기하였는데 남학생들이 알고 있는 가정 생활이라는 것이 피상적이야. 둘이 살 때 누가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게 뭐가 대단해. 조금만 자기 몸으로 때우면 되는데.. 공부할 때는 일도 별로 없고 사먹으면 되고 문제가 안되지. 하지만 애가 생기면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 예를 들어 둘이 똑같이 바쁠 때 놀이방에 있는 애를 누가 찾으러 갈까나 하는 거야. 거기서 니가 엄마니까 찾으러 가야지라는 말을 안할 자신이 있으면 결혼을 하고 그 문제로 끊임없이 부인을 괴롭힐 거라면 차라리 결혼을 다른 사람, 집에 있으면서도 행복한 사람과 하라고 말하고 싶어. 가사 문제보다 육아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 늘어나게 되면 육아를 맡을 직업도 더 늘어나고 환경도 좋아져야 할 것 같아. 지금처럼 직장 생활하고 교통도 막히는 상황에서 6시에 애를 찾으러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앞으로 장시간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봐줄 시설이 생기거나, 아니면 직장이 정확하게 9 to 5같이 되던가 해야지. 후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당장 힘들겠지.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에 문제가 많거든. 수적인 면이나 시설 면에서 뿐만 아니라 운영 시간에서도. 일터에서도 여자가 애 찾으러 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여자는 저래서 안돼 라고 보잖아. 그렇다고 운영 시간이 길어지면 애한테도 문제가 되지. 14시간이나 거기 있어야 하니.... 보육자를 정책적으로 키워주는 방안이 필요 해.

교수님들 중에서도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을 선호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아무리 일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러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속상했어요.

나도 그런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었는데, 내 생각으로는 여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지 모르는 것 같아. 똑같이 하면 되는데.. 숙직도 시키면 돼. 강도만 안 들어오게 시설만 되어 있으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애 있어도 다들 일 하는데.. 그냥 야단치면 되는데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하나 등등 여러 가지로 복잡해 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니 불편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그냥 시키면 되는데...야단도 치고 출장도 보내면 되는데 말이야.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 말하기 힘든게, 거기에는 사회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런 점을 한두 사람에게서 느끼는 것도 아니고, 실제 여학생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서울대에 있을 때도 회식이나 모임이 있거나 하면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는 거야. 애 찾으러 가야하지 않으냐고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은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일이지.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지. 그래도 이제 여교수도 있고, 그리고 안 그러신 분도 많으니 많이 나아졌지.

무뎌가 되는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좀 해주세요.

난 늘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고 대학원생들도 아무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고, 학문적으로도 뒷받침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 하지만 요즘 학생들에게서 계산적인 면이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해.

진로에 대해서도 많이들 고민을 하는데 물론 고민할 가치가 가장 큰 것이긴 하지. 어떤 일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후회하는 사람도 많은데, 몇년의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도 정말 중요할 거야. 하지만 선택의 길에서 각자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는 다르겠지만 특히 앞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그 분야를 해서 직장을 어떻게 잡고 하는 일 등을 염두에 두면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그리고 일단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사람은 밥을 먹고 살만큼은 되겠지만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없어. 돈 문제를 생각하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거야.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하다보면 길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 직장과 공부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심사숙고 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학문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석사로 끝날 것도 아니고 어려운 점이 많아. 자기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 좀더 순수한 마음으로. 요즘 세상이 너무 물질만능 시대다 보니 학생들도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것 같아. 천문대기과가 가능성이 많은 곳이야.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여학생들 경우도 차별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인원도 많지 않아 선생님들의 뒷받침도 있을 것이고.... 순수한 열정, 학문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 나간다면 원하던 바를 이룰 수 있을 것 이야.

대학과 나의 진로

- 박봉우 (컴퓨터과학과 90학번, 고려대 법학과 편입) -

1. 들어가며

사람마다 각자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왜' 그렇게 사는 방법을 택했는가에 있다. 나는 이과대학 전산과학과(후에 컴퓨터과학과로 이름을 개칭하였으며 지금은 공과대학 기전공학부로 되어버린 평탄치 않은 팔자를 지닌(?) 90학번이다. 90년 3월에 입학했고, 94년 2월에 무사히(?) 졸업을 했다. 이후 94년 2월부터 96년 2월에 그만두기까지 회사를 다녔다. 96년 3월부터는 고려대 법학과에 편입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다.

개인적 경험을 되짚어볼때 대학교 1,2,3,4학년이란 단순히 학년의 차이뿐 아니라 문제를 보는 관점 또한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글을 부탁받고 쓰려고 하니 어느 기준에 맞추어 써야할지 막막했다. 궁리 끝에 시기별로, 항목별로 몇가지로 나누어 적어보기로 했다. 나에게는 대학교부터 그 이후의 삶을 차근차근 다시한번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어주었으나, 쓸데 없이 글이 좀 길어진 느낌이다.

2. 대학생활

나는 1학년때는 '이학편집위원회'에서 새끼편집위원으로 활동했고, 2학년이 되어서는 과학생회의 집행부로 있었다. 그러다가 3학년이 되면서 이과대 여학생회로 합류하여 졸업할때까지 이과대 여학생회에 있었다.

1) 학과공부에 관하여

새삼스레 전산과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를 말하기보다는 대학생활에서의 학과 공부의 의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나에게 대학이란 단순히 지식의 배움터의 의미는 되지 못했다. 과의 특성때문이었던지 당시 우리과에는 학점은 엉망이되 컴퓨터에는 귀신인 친구들이 있었고, 그 해박한 지식의 도움을 받은 했던 나는 나도 모르게 과의 전공공부에 대한 이유없는 불신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게으름이라고 해야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이 단순히 지식의 배움터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경험을 해 볼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기본적 생각은 틀린 것이 없었지만, 그것을 핑계로 게으름을 숨기고 전공공부를 등한히 한 점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생활을 하다보면-특히 이과대의 경우 과목마다 시험이 많은관계로- 학과공부와 다른 일이 겹칠때가 있다. 그럴 때 '우선 순위'의 문제가 대두되곤 했다. 나는 주로 그럴 경우 '당위-즉, 해야만 하는것'이 더 강하다고 생각되는 쪽을 하곤 했는데, 그 기준은 '직면한 문제가 우리의 문제인가, 나만의 문제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나가는 쪽을 선택했었다.

그 이유는 나만의 문제라면 나중에라도 내가 그 보충을 할 수 있으리 우리의 문제라면 지금 나 하나가 빠짐으로써 우리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대학생활에서의 학생운동

역마살이 끼어서 그런지, 나는 과박에서(이학편집위), 과안으로(과학생회), 다시 과 밖으로(이과대 여학생회) 옮겨다녔는데 4년 내내 과안에서만 있다가 졸업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대학이 주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그럴경우 학원이나 다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 어차피 졸업을 한 뒤에는 대부분 자기 전공분야에서 일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다른 분야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적인 문제도 있으므로, 대학에서의 다양한 기회를 되도록이면 살려서 여러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이 조금은 전설처럼 남아있는 시대(왜냐하면 내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이른바 80년대 학번이 학교에 다니던 시기였고, 1학년 때에는 87학번이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므로)에 학교에 다녔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행운인지도 모르겠다. 요즘 다시 만나는 대학내의 공기는 이곳이 과연 진보의 메카가 되어야 할 대학인가하는 생각을 하게될 정도로 '보수 우익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학생운동이 지니고 있던 '도덕성'과 '진보성',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한 확신'은 당시만 해도 너무나 투명했고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지금의 학생운동은 아쉽게도 그러한 투명성을 자꾸만 내어주고 있다. 학생운동이 '도덕성'을 잃어버릴때 그것은 운동에 있어서 커다란 약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운동을 탄압하려는 쪽은 어떻게 해서든 그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한다. 가까이 91년 외대에서의 당시 정원식 국무총리에 대한 계란세례가 그러했고, 최근 학교의 통일축전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일련의 일들도 그러하다.

3. 회사생활

1) 선택계기와 입사준비

진로문제는 누구에게나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은 진로문제를 아주 일찍부터 준비해야한다고 한다. 한편으로 그러한 말은 일리가 있다. 너무 늦게 진로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 버리고 상황에 떠밀려 갈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 때문에 대학생활 전부를 희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진로문제를 일찍 결정하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주체성을 잃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만들고 계획하라는 것이지, 1학년 혹은 2학년부턴 '나는 이게 아니면 안돼!' 라고 생각하고 다른 그외의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끄럽게도 이런 말을 하는 나도 나의 4학년을 생각해보면 그리 주체적이지

못했다. 4학년이 되자 마음이 바빠졌다. 대학원을 진학할지, 취업을 해야할지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원을 생각해보았으나, 대학원은 정말로 학문적 관심이 있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고, 회사에 취업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원이 진학한다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취업을하기로 했다. 무엇이 되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고민을 잊고, 그저 현재에 내게 열려진 일반적 가능성만을 이리저리 타진해 보았을 따름이었다. 모든일에 원칙이 먼저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너무 쉽게 잊었던 것이다.

여름방학동안에는 '현대전자'에서 인턴사원으로 3주간 일했는데, 과정이나 결과를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별로 인턴제도는 권하고 싶지 않다. 회사로서는 미리 신입사원을 확보 해두는 수단이 되지만, 본인으로는 소중한 마지막 방학을 좀더 다른 곳에 귀중하게 써버렸다는 후회가 남았던 인턴생활이었다. 만일 인턴제도를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4학년때보다는 3학년겨울방학을 권하고 싶다. 내가 선택한 회사는 삼성데이터시스템(SDS)이라는 삼성그룹계열의 정보통신회사였는데 회사가 전산관련회사라는 외에는 특히 꼭 이 회사를 들어가야겠다는 이유가 없었다. 언젠가 다시 회사를 선택하고 취업을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내게도 오겠지만, 그때는 좀더 열심히 회사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조금더 현실적인 고민을 하면서 회사를 선택하고 싶다.

2) 회사생활

정보통신회사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대졸 여사원수가 많고, 또 회사내의 무계적 비중도 꽤 차지하고 있는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여직원에게 대한 차별도 적은 편이다. 사무직 노동이고 업무자체가 대인접촉이 별로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흔히 회사에서 요구하는 '외부인접대능력'이라는 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SDS의 경우, 여직원에게 대한 임금차별은 없고, 산전산후휴가 2개월(유급), 육아휴직1년(무급)이 어느정도 보장되어 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회사내 탁아소 설치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보이는 형식적 차별의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차별의 문제가 더 심각한 법이듯, 여사원은 남사원보다 승진이 6개월~1년정도 늦어지는 예를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었고, 업무의 질또한 가볍고 쉬운 일은 여사원에게, 어렵고 힘든 일은 남사원에게 배분하는 풍토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 '나는 괜찮아.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왜 나만 차별받아야 해'라는 식으로 개인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사회전체에 퍼져있는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한 현상으로 파악하고 작게는 회사내에서 나아가 사회의 문제로 파악하고 연대하여 대응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4. 편입준비

입사를 한후 1년쯤 다니고 나자 정신이 들기 시작했다. 자신의 10년후, 20년

후를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10년후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있을 까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시작했다. 고등학교때 고민하고 7~8년쯤 잊고 있었던 고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어떻게 살것인가와 왜 그렇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로 법학공부를 하기로 했다.

졸업후 자신의 현재 전공과 다른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은 경우라면 여러 가지 방법중 복수 전공이나 편입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미 학교를 졸업한 후였기 때문에 학교의 복수전공제도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학사편입을 했다. 만일 4학년이라면 학사편입보다 좀더 용이한 복수전공쪽을 권하고 싶다. (복수전공의 경우, 우리학교는 면접만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사편입은 대학의 학사증을 가진 자에게만 편입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행중이다. (단, 서울대등 주요 국공립대학은 편입제도가 없다) 보통 정원의 10%안팎에서 뽑으며 입학한 뒤에는 해당과에서 원하는 커리큘럼(대부분 전공학점이다)을 이수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편입시험과목은 학교에 따라 다르고, 또 출제유형도 판이하게 다르므로 일단 학교과 과를 정한 후에는 그것에 관한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두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편입학원 등에 가면 상담도 해주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고대 법대의 경우, 학사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과목은 84학점(전공필수 72, 전공선택12)이므로 4학기동안 이수하려면 꽤 벅차고 아예 처음부터 5학기정도로 예정하고 그 계획에 맞추어 학점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다. (5학기부터는 등록금이 감면된다.)

학사편입의 경우 시험시기는 대충 2월초쯤이며 전형요강발표는 1월초부터 중순사이며 입간지등과 피씨통신 등에 실린다. 이수과목의 경우 이전학교에서 비슷하거나 동일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인정이 되는 수도 있으니 만일 편입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점도 고려해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5. 마치며

대학생활을 돌아보면 내게도 힘들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대충 4학년 초반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부도, 운동도, 연애도, 하나도 잘 되는게 없었고 게다가 4학년이라는 귀퉁이에 물린 심정까지 더해져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던 시기, 대학 입학이후의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 나 자신을 감아먹던 시기가 있었다. 인간성에 비해 친구복이 많은 편인 나는 그때에도 한 친구로부터 귀중한 힘을 얻었다. 이제 부끄럽지만 그 친구와 나는 대화로 마감하려 한다. -'너 만약에 말이야, 네가 대학을 다시 들어온다면 아니 시간을 다시 1학년때로 되돌린다면 지금껏 네가 살아온 것과 다르게 살고 싶니?'-'글세, 가끔 나도 그런 생각을 해...'

하지만 나는 역시 나고, 다른 사람이 아니니까, 다시 1학년이 된다고 해도 아마 여태껏처럼 살았을 거야.'

치과대학으로 편입하면서...

-치대, 의대, 한의대로 편입하는 길-

서명아 (화학과 91학번, 우석학교 치대 편입)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나뭇잎 사이로 햇살과 함께 높이 있는걸 보니 벌써 가을인가 봅니다. 시간이 화살 같다는 말이 어느 때 보다 화살 같이 내 머릿속에 박히는 걸 보니 그 만큼 나 자신이 바뀐가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거나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망설이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를 이과대 여학우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95년 2월, 91학번으로 연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96년 2월 연세대학교 치과대 본과 1학년으로 편입을 해 지금은 젊디 젊디 94학번과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복수 전공이나 편입을 희망하는 후배들이 늘어났다기에 제 경험을 글로 쓰면 어떻겠느냐는 후배의 부탁에 선뜻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없는 글솜씨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선 치, 의, 한의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모순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모두가 아실겁니다. 입시제도에 발이 묶여 전공을 선택할 때 부모님이 권해서, 점수를 맞추다 보니, 그 과에 대한 확실한 정보도 없이 대학에 들어왔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요. 옛날 같았으면 애써서 들어온 대학을 쉽게 포기 못하고 졸업만이라도 하자는 식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드물죠. 하고 싶은거는 꼭 하고 산다는 것이 요즘 신세대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2-3년전 부터 부쩍 '편입'이란 말을 많이 들어 왔을겁니다.

우선 우리 학교를 예로 들자면, 과를 바꿀 수 있는 제도로는 복수전공과 학사편입이 있습니다 (96학번부터는 학부제로 바뀌었으니 제도가 저희 때와는 좀 다를지도 모르겠네요). 복수전공은 우리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해 계열에 상관없이 평량평균 2.8이상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4학년 마지막 학기 방학때 시행하는데 주로 학점과 면접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단, 의, 치대의 경우는 평량평균 3.0이상이어야 하고 치대의 경우는 기초 치의학 시험도 봅니다. 말이 3.0이지 소문에 의하면 3.5이상은 기본이라고 그러더군요. 시험에 합격하면 그 과의 3학년으로 학번을 받게 되고 그전 과에 대한 졸업장은 복수전공을 마치게 되면 한꺼번에 2개를 받게됩니다. 의, 치대의 경우는 본과 1학년이 되구요. 학사편입의 경우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자에 한

해 인문계의 경우는 전공기초와 영어시험, 면접을 보고 자연계의 경우는 전공기초와 미적분학, 면접을 입시요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졸업했든 언제 졸업을 했든 상관없구요. 우리학교가 전공과목을 시험으로 보는 몇 안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한 입시전형에 관한 것은 기말고사 보기 전 연세 춘추에 광고가 나가고 다른 학교의 학사편입의 경우는 12월 말에서 1월중에 각 학교가 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으니 그 즈음 신문을 주의 깊게 보면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름 대로의 이유와 계획이 있듯이 저도 전과를 하게된 것에 저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갈등을 했죠. 동기들이 취직 시험, 대학원 시험에 바빠할 때 상대적으로 저는 놀고있는 신세가 됐었거든요. 제일 힘든것이 편입시험은 학교 일정이 다 끝나고 그 다음해 2월경에 치르기 때문에 지나간 겨울방학을 조마조마하며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걸 같이 준비하려고 하니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놓칠 것만 같고 그냥 밀어부쳤다가 만약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뒷 일은 생각하기도 싫어지거든요.

그 다음이 정보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출 문제라든지, 몇명을 뽑을건지, 면접은 어떤식으로 보는건지 등등...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서점을 이용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찾아보고 마음만 먹으면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의, 치, 한의대, 약대의 학사 편입이 올해 초부터 개방되기 시작했는데 작년의 경우 의대는 경희대, 한양대, 이대, 건국대, 인제대에서 편입생을 받기시작하였고 치대의 경우는 연세대, 경희대, 단국대, 그리고 약대는 이대, 숙대, 성대, 덕대, 경희대가, 한의대는 경희대, 원광대에서 편입생을 받았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더 많은 학교가 더 많은 수의 편입생을 뽑지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우리학교 의대의 경우는 복수전공으로만 인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한 번에 12명 정도 뽑았고 거기서 떨어지면 학사 편입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치대의 경우는 복수전공과 학사 편입 두 번의 기회가 있지만요. 그런데 96학번 부터 정원을 20명 적게 받았기 때문에 1998년 부터는 우리학교가 처음으로 4+4제도를 정착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제도상의 얘기를 한 것 같으니 다음은 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모든 학사편입 시험에는 영어가 필수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전공시험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의, 치, 한의, 약대의 경우는 모든학교가 전공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대만 예외였고요. 경희대는 올해초 계열 불문하고 영어시험 하나가지고만 편입생을 뽑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엄청 물려든 걸로 알고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었으니까요.

우리학교 치대의 경우는 면접, 그리고 영어와 기초치의학 시험을 보는데 기초치의학이라는 말만 듣고는 도대체 뭘 공부해야 할지 아득할 겁니다. 치대생한테 물어 봐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우리학교 도서관에서 치의학 책이 있는 곳에서 아무책이나 뽑아서 읽곤 했습니다. 앞으로 할 전공에 대해서 알아둔다고 손해 볼 건 없다는 생각에서요. 그러다가 치아 형태학이란 책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이거다 하고 느낌이 딱 오더라구요. 궁금하신 분은 직접 가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전 성공했거든요.

우리학교의 치대는 시험 점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섯분의 교수님들과 개인적으로 면접을 보는데 올해의 경우 2시에 시작해서 거의 6시가 다 되어 끝났으니까 알만 하겠죠.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해서요. 경희대의 경우는 3분도 채 안걸렸고 이대의 경우는 7,8분이 고작이었는데 말입니다. 혹시 치대에 관심 있으신 분은 왜 치의학을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이유를 가지고 있는것이 좋을 겁니다. 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학교 영어 시험은 원래는 교양 영어 책에 괄호 메꾸기 식이었는데 올해부터 무지 어려워 졌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서점에서 팔고 있는 학사편입 기출문제집에 나와있는 1995년도까지의 문제와는 비교도 안됩니다. 장문 독해가 두 개에다가 우리학교 영어시험에는 꼭 나오는 영작이 세문제, 이렇게만 나왔는데 시간이 부족했으니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단어는 TOEFL수준보다는 높고 GRE수준보다는 약간 낮고... 원래 편입 시험 문제는 제출하는 교수님이 계속 제출하시기 때문에 교수님이 바뀌지 않으셨다면 내년에도 좀 어려울 것 같네요.

형림이가 치대 생활도 함께 써달라고 했는데, 글썄요... 공부 가 힘들지 않느냐고 친구들이 물어보곤 하는데 분명한건 무슨 일이든지 다 그렇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잘 극복해 내고 기쁜일이 생기면 그 기쁨이 두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시작하고 목표에 까지 다가가기 위해선 자기가 제일 부지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글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물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건축공학과를 복수전공하면서...

이영숙 (화학과 91학번, 건축공학과 복수전공)

맹은영 (전문대기과학과 95학번)

? 경쟁율이 매우 높다고 들었는데 복수전공으로 건축공학과에 들어가기 힘들까요? 면접만으로 뽑나요, 아니면 다른 시험도 봐야 하나요?

: 학점이 3.0 이상이면 되지만, 사람이 많아지니까 스케치, 21C 건축에 대한 생각 등을 물어보는 시험을 면접과 같이 보기도 하지요. 사전에 공고를 해요.

? 몇 명이나 뽑나요?

: 해마다 달라요. 1차, 2차로 뽑는데, 20여 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나요. 경영대 다음으로 많은 수가 합격한 것이네요.

? 언제 복수전공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셨습니까?

: 3학년 여름 방학 때쯤이었어요.

3학년이 되면 모두들 진로에 매우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2학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선거가 있어, 끝까지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3학년 때는 대학원에 갈 생각이거든요.

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은 복수전공을 하게 될 경우 별로 준비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점도 있어요. 4학년 때 총여활동(연세여성 편집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했었어요. 그때는 미리 건축공학과와 전공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지금 생각으로는, 전공 중 몇가지를 들어두는 것도 좋을 듯해요. 설계의 경우 6가지 과목이 있으나, 2년만에 졸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4가지 밖에 들을 수 없어요. 처음부터 건축공학과로 입학한 애들은 계속 선배들을 보고, 과에 소모임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날들하던 대로 따라하면 되지만, 학년 올라가면 기본부터 하려니, 어려움이 많아요.

여건이 되면 2학년 전공 과목 정도는 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둔 과목이 나중에 인정되려면 학과장을 찾아가는 절차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전공을 들을 때 현재의 자기 전공의 희생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해요. 이과대는 특히 시

힘도 많으니 그것도 고려해야 할 듯... 4학년 때 학점이 많이 남을 경우 듣는 편이 나을 것 같네요.

설계과목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는데 벼락치기는 안되요. 주력 설계과목 같은 경우는 보름 정도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었어요.

؟ 복수전공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미덥지 않은 듯 했나봐요. 화학과 들어간 것도 내가 결정한 것인데, 그 전공을 바꾼다고 하니깐요. 그러나 합격 후에는 별 말 없으시고 잘 다니라고 하십니다.

？ 건축공학과와 전공 과목은 어떤가요?

이공계 기초 과목과 비슷해서, 이수가 인정되는 과목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64학점만 들으면 되지요. 일반화학, 일반물리, 미적, 공업수학 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에요. 학업을 따라가는 것은 생각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이과 계열 전공은 더 어렵잖아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설계를 제외하고는 암기라 쉬운 점도 있어요. 구조 쪽은 계산이 어려워요. 설계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도 아마 이것 때문에 이 과를 선택했을 거예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구조 쪽-구조 설계 (건물 하중, 기둥 두께 등을 계산), 설계 디자인 뿐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시공(시공법-벽돌 쌓는 방법부터 최신 기술까지)분야를 할 수도 있고, 감리(설계 도면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견적(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 산출) 등 분야는 매우 많아요.

요즘에는 경영(construct management)쪽도 있는데, 외국에서 많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각광받는 분야이지요. 이것은 처음부터 처리 끝까지 말 그대로 관리, 경영을 맡는 거예요. 나는 설계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고등학교 때 학과 선택이나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 그때는 화학에 관심이 많아요. 건축은 막연히 노가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대학에 와서 백주년 기념관 등에서 열리는 주거환경과학과와 건축공학과 졸업 작품전을 보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아기자기한 분야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불합리한 점 많이 느끼는 것처럼 내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결국 건축은 대학에 와서 알게 된 분야인 셈이지요.

？ 분반을 하나요.

： 설계 빼고는 분반은 없어요.

？ 숙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 거의 매일 리포트가 있어요. 요약하라는 숙제에 분량 작전으로 나가는 (A4 100장을 하기도 하더라구요) 그런 숙제를 하려니 힘들지요. 밤샘 작업이 많아요. 설계 좋아하는 애들은 한 학기 내내 밤새는 걸 밥먹듯이 하기도 해요. 시험 공부야 어느 정도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설계는 시간을 들일수록 할 것이 많고, 그만큼 내용이 풍부해져요. 선생님들께서도 시간 투자 여부를 아시지요. 예쁘고 잘 그리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지요. 아주 기본적인 것, 건축이란 무엇인가부터, 고민한 만큼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져요.

？ 들어가서 사람 관계는 어떤가요?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 복수전공하는 사람들과는 서로 친해요. 과 사람들과는 얼굴은 다 알지만 매우 친한 것은 아니지요. 9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다 알기는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친해져야지요.

？ 그럼 사람 관계가 문제되지는 않았나요?

： 학기 초에는 애들과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우리과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건축공학과를 우리과라고 부르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애들 태도와 분위기도 매우 다르고 모든 게 새로워, 수업시간에 졸리지 않는 것이 나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였어요. 리포트도 잘 썼고요. 대체로 복수 전공자들이 열심히 하는 편이죠. 우리가 복학생 공부하는 것보는 것처럼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우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교수님들께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나?" 라는 질문을 하실 때나, 애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몸둘바를 몰랐어요. 물론 착한(?)에도 많지요. 어느 정도 경계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3학년 2학기 선거부터 총여에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재미있었던 것 같다. 선거 때부터 함께 뛰었으니 목표도 같고, 마음도 맞고 우리가 세운 목표를 사업으로 풀어내는 만족감도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었어요. 지금은 같은 과에 있어도 복수전공이다 보니 깊은 친구 관계는 없는 듯해요. 허전한 인간관계를 느낄 때 예전 총여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기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 졸업하고는 무엇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 이번 (여름) 방학에 한 건설회사에서 경험삼아 인턴사원으로 있는데, 방학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가지 교육도 받고, 거기서 영어 회화 수업을 할 때 지원도 해주어요. 그러나 그 회

사로 갈 생각은 없고, 2학기 때는 사무실 쪽으로 알아볼 생각이예요. 졸업하고 나서 취직 뿐 아니라 대학원도 많이들 가요.

؟ 건축 기사 시험은 꼭 봐야 하는 것입니까?

： 시공 쪽을 하고 싶으면 자격증을 따야해요. 아니면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후 건축사 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으로 그 시험을 보지요. 1, 2차 시험이 있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다른 시험도 있는데, 예비시험으로 5년 후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이 시험을 볼 생각예요.

： 질문 하나 할게요. 왜 복수전공을 하려고 하나요?

？ 저는 원래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처음 대학에 입학 때는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지 하고는 그 분야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 복수전공자들이 졸업 후 미래 진로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가지 말해 둘 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전공과목에 인테리어 쪽은 없어요. 오히려 매우 다르지요. 그 쪽은 주거환경학과 쪽이 더 맞을 거예요.

？ 나중에 결혼을 하신다면, 그 무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물론 계속 일할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보면 나이들어서 공부 다시 하는 사람도 많아요.

？ 많은 사람들이 직장 일과 가정 일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 육아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 현재 상황으로 보면, 휴직을 하거나 사람을 두어 맡겨야겠지요. 항상 최선을 선택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과에는 강사분들이 많은데 개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요. 그분들도 결혼 후 직장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 끝으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 건축 잡지를 많이 보시라는 거예요. 도서관에도 외국 잡지부터 국내 것까지 여러권이 있거든요. 흥미나 관심을 일으킬 수도 있고, 건축은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한 강사분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설계에서는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아야 한다고, 여기에는 COPY-모방-창조의 단계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외국 학교에서는 유명한 작가의 도면을 따라 그려보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보는 시간도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찾아서 해야겠지요.

96 여성취업박람회에 다녀와서

6월의 중소기업 여성채용박람회 이후 보다 큰 규모로 열린 여성채용박람회 첫날. 아침부터 물려드는 여성취업자들은 삼성무역센터 밖까지 긴줄을 이뤘고, 교육부 장관과 정무장관, 그리고 여러 언론사와 방송사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그 개막을 지켜보았다.

주최를 맡고 있는 여성신문사의 낯익은 얼굴도 보였다. 여러 관계자들의 흥분된 얼굴속에는 교육부 장관의 당당한 모습도 함께 있다. 개막을 열었던 사람들이 부산하게 자리를 뜨고 난 후, 긴줄을 지으며 기다렸던 사람들은 여러 관련 책자를 받으며 박람회장에 들어섰다.

제일 먼저 보이는 삼성회사의 안내원들은 안내책자와 홍보백을 함께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뒤에 한보와 현대도 있고, 각 코너마다 있는 회사들은 각자의 서류를 나누어 주고 있지만, 그 앞은 사람들로 부산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 보아야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었다. 여기 저기 안내서류를 받고 나니 한쪽에 전시된 성공 여성 사례들의 사진이 보였다. 그렇게 다 돌고 나면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시간. 박람회에 나와 있는 회사의 80%이상은 늘 여성의 채용을 공고하는 학습지와 보험판매직(삼성마저도 삼성생명만이 나와 있었다)만이 있음을 알기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박람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다시 막막한 취업을 생각해야 하는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고 있었다. 사회에 뿌리박힌 여성 채용의 한계를 박람

회장에서조차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 참여는 계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시장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한정된 분야에 (서비스직이나 일반 사무직) 임시 노동직으로 고용하여 값싸게 활용하는 경제구조가 조성되었다. 성차별 분리 직종을 통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경쟁을 할 기회를 잃었고, 취직이 되어도 임금 차별을 감수해야 하며, 결국 보이지 않는 승진의 벽을 느끼고 오래 되지 않아 직장을 나와야 했다. 여성채용에 가장 개방적이라는 우리나라 삼성 회사의 3급이상 여성직원 비율이 아직도 4.8%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참고 - 미국 모토로라는 33%) 여성을 채용하려는 동기가 값싼 노동인력의 확보에 있는 다음에야, 여성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허풍에 불과할 것이다. 한국 여성 채용의 열악함을 그대로 보여준 무역센터의 여성채용 박람회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좁아 보였다.

신인사제와 여성고용

노총과 정부의 이해를 좁히지 못하고 올해 봄 출범한 노동개혁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무산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변형 근로제와 파견근무제도의 도입에 반발하고 복수노조 설립, 제3자 개입 등의 변경안을 요구하며 노개위에 불참할 것을 선언하였다. OECD의 가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정부는 10월 14일 OECD가입이 확정되자 노개위를 통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되었다.

한국의 노동여건이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인 노개위의 활동이 무산의 결과를 낳은 데 덧붙여, 앞으로의 노동 시장 변화 또한 어둡다. OECD가입이후, 한국은 개방과 경쟁의 원리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시장의 비효율적 구조와 이에 따른 낭비를 지적하던 많은 경영자들은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신인사제를 더욱더 많이 시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93년 신한은행이 여행원제를 폐지하고 남녀행원모두 일반직 사무직 전문직 기술직등 4개 직군으로 구분하여 인사를 관리하며 입사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군을 선택하게 하는 신인사제를 도입하면서 우리 나라에 신인사제라는 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내 한국은행의 여은행원들은 신인사제의 도입에 반발하고 나섰다. 입사시부터 직군별에 따라 구분되어 관리되는 것은 여은행원들이 승진할 기회를 애초에 막는 것이며 여성인력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노동부 또한 성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신인사제의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회사들은 직군의 다른 관리를 선호, 신인사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신인사 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93년 노동부 산하 노동 연구원 어수봉씨에 의해 처음으로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유연노동시장 정책으로 요약된 신인사 제도는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직무 또는 노동자층에 대해서는 기능적 유연성을 주어 어떠한 임금저하와 노동조건 악화에도 노동력이 부족해지지 않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 노동시장에 통합할 필요성이 없는 직무 또는 주변적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 인력과 임시직을 통한 수량적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쓰게 된다.

금호그룹은 인재를 최단기간에 경영자로 키우기 위한 신인사제로 입사원중 인사고과와 외국어실력이 뛰어난 20여명을 경영자 후보로 선발, 기존 승진체계를 거치지 않고 고속 승진을 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외 삼성과 LG 선경 등도 기존의 연공서열(먼저 입사한 사람이 승진하는 경우)수순을 깨고 능력제에 따른 승진을 하게 한다는 방침을 도입했다. 채용시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 높은 강도의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을 도입한 것은 이렇듯 금호그룹 이외의 다른 회사에도 파급되었다. 이와 함께 근무자들이 편리한 시간에 출퇴근하게 하는 변형근로제의 도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신인사제는 고용 관리의 효율성을 보장하며 학연, 지연보다는 능력을 중시한

다는 의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일련의 제도들이다. 승진, 채용, 근로 조건 등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채용방식에서의 변화

면접에서 기존의 관습을 깨고 학벌과 성차를 배제, 오직 면접만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는 파격적 방식을 기업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 방식이 몇몇 선도적 기업의 이미지 변신과 함께 이루어진 것에 비해, 결국 이전 채용과 유사한 비율로 대졸자와 고졸자가 뽑혔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도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다. 오히려 기업은 이 방식을 활용, 오랫동안 성차별과 학력차별을 한다는 비난을 이제부터는 듣지 않게 되었다. 면접관의 판단에 따라 뽑으니 만큼, 객관적인 기준은 중시되지 않고, 소위 우리 기업이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이름하에 기업의 차별을 합리화 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면접관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최근 남성 취업준비자들 사이에서도 외모에 대한 준비(?)를 부산하게 하기 시작했다. 첫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외모에 관해서는 불모지라고 할 만했던 남성영역 사이에서도 성형바람이 일고 있다는 기사가 신문을 장식했다. 이에 따라 원래부터 외모가 중시되던 여성 채용 기준은 오히려 강화된 셈이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면접관들이 여성채용자에게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61.9%가 능력을 뽑았으나 다른 설문 문항에서는 외모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이 70%에 달했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근무에 대한 견해를 묻자 휴직하거나 그만두기를 원하는 기업 또한 40.3%나 되었다. 아직도 기업경영자들의 편견이 남아 있는 차에 면접관의 판단에 큰 비중을 부여하는 신채용방식은 겉치레에 치중하는 풍조와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

고정된 시간제(nine to five)의 틀이 깨어지고 일하고 싶은 때에 일을 하자는 명목으로 논의되고 있는 또다른 제도가 변형 근로제이다. 경영자 측에서는 취업주부에게는 집안일과의 양립에 융통성을 기할 수 있으며, 그외 근로자에게도 취미 생활과 여가 생활 등에 도움이 된다는 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의도는 다른 데에 있다. 10월 6일 한국 경영자 총협의회의 설문조사에서는 변형근로제의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 42.7%가 노무비 절감을 위해서 50.2%는 격주 토요일휴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2주당 하루 분의 임금지급을 줄 일수 있음.) 라고 답했다. 모두 비용 절감에 따른 이유가 주되게 작용한 것이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서 낭비되고 있는 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취업주부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은 가사일과 직장일의 효율적 시간 분배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취업주부의 노동량은 급증하게 된다) 또한 변형 근로 시간제에 따른 임금

저하가 노동력의 질적 상승을 가져오리라 보지 않는다. 참고로 설명하자면 변형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특정한 주 또는 날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고, 평균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절 사업이나 건설업, 접객 서비스업, 납기일에 맞추어야 하는 수출 산업등 업무의 변화가 불가피한 업종은 바쁜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한가한 기간에는 쉬는 근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업종에서는 사실상 현행 노동 법규 준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러 기업에서는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 악화와 임금저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 재택근무에 대하여

재택 근무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년전의 일이지만 파급효과는 의외로 커지고 있다. 재택근무는 미래사회의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으며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의 방식을 채용 또는 응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럭키금성의 정보회사인 에스 티 엠은 육아휴가가 끝난 후에도 주부사원이 육아나 기타 집안 일로 인해 회사 출근이 어려울 때에는 부서장의 판단하에 집에서 업무를 보고 하도록 하는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남기업은 건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회사에서 5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주부사원 4명을 채용, 최근 재택근무자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이 사원들은 대부분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된 30대 초반의 주부로 주로 아파트분양을 위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 평면개발 마감 자재선정 사업성 검토 도면 검토등을 맡고 있다. 이들은 집에서 PC통신을 통해 업무 처리 및 회사와의 연락을 취하며 주1회 본사로 출근하고 있다.

재택근무란 집에서 일하며 업무 성과를 정기적으로 회사에 보고하는 (그것도 통신이 가능하다면 통신으로) 근무 방식을 말하며, 전산과 컴퓨터망을 통해 사회가 발전된다면 앞으로도 더욱더 광범위 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재택근무 방식은 육아와 가사를 맡고 있는 직업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각광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조사된 한 연구에 의하면 (조옥라 교수의 '재택 근무자의 심층 연구') 재택근무는 여성 인력을 활용할 방안이기는 하나, 여성의 노동여건을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지적되었다.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택근무시 여성의 노동시간은 더욱 증대하는데 반하여 다른 가족들의 가사보조는 더욱 줄어들었다고 한다. 재택근무자의 대부분은 :

* 아이가 깨어있을 때 함께 놀아주고 아이가 잠들때만 일을 해 너무 힘들었다 * 사무실에 출퇴근할 때는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고 가정일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집에 서 일을 하면서 남편이나 아이를 돌보는 일이 첨가돼 시간적 여유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힘들다 * 음식도 더 많이 하고 청

소도 더 자주하게 된다 * 남편이 자신이 있는 저녁시간 동안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새벽에 일어나 일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를 주된 어려움으로 든 것이다. 재택근무 주부사원의 대부분은 직장일을 수행하며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근무자는 계속적인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남성의 가사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재택근무자는 사무실 부원과의 관계 문제와 승진의 문제를 함께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회사쪽에서 꺼려하는 재택근무의 단점도 몇가지 있다.

근무자의 집마다 업무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점이나 보고 과정의 번거로움이 재정적 낭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컴퓨터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가정주부를 계약직으로 채용, 집에서 일하게 하거나 정규 근무시간을 끝나면 집에서 회사 컴퓨터와 연결,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방식등의 "변종 재택근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택근무의 변종도 노동력의 활용만을 꾀할뿐, 재택근무자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의 노동 여건을 개선시키기 보다는 악화시키고 있다.

이 연구 보고서는 재택근무가 여성의 경제 참여를 확대시키기는 하였으나, 남녀 차별의 사회가 함께 개선되지 않는한 여성의 노동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현재 재택근무자의 업무가 과소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여성이 집안에 상주함으로써 직업과 가사의 양분담이 당연시 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 비정규직 채용의 여성 인력 급증 현상

90년대 이후, 비정규직(part timer) 여성 인력이 급격하게 증가되기 시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95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업체의 18.7%가 비정규직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10.8%가 채용계획을 밝혔다. 실제 비정규직의 85%는 여성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직종별로 보면 판매직 57.5%, 생산 단순 노무직 31.5%, 사무 전문직 11% 순임) 시중 7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92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년에 비해 5백 52%가 증가했고 매년 40-50%이상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은 근로 조건이 열악하며 고정직원들과 동일한 일을 하여도 임금이 낮다는 결함이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행 노동 관계법과 사회 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복지수준도 열악한 실정이다. 게다가 여성 비정규직종자들은 남성 비정규직자들보다도 임금이 낮아 값싼 노동력을 원하는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 최근 노동력 부족의 효과가 커지자 기업들은 '여성의 자립'을 이야기하는 선진 기업인양 하며 여성 인력을 값싸게 활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루어진다면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다를 바 없게 된다.

비정규직은 또한 노조 설립의 단계를 와해시키고, 노동인력 공급의 원활함을

유지시켜 경영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만족시켜 준다. 이러한 비정규직종과 같은 의도로 크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 파견 근로제가 있다. 노동계는 현재 3천여 개의 근로자 공급업체와 30여만 명의 파견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견 근로자는 비정규직 채용처럼 인건비가 절감되고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 약화의 부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파견 근로자가 겪는 근로조건의 어려움 또한 만만치 않다. 95년 10월 민주노총 준비위원회가 실시한 파견근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견노동자의 주 평균근무일수는 5.9일, 평균근무시간은 58.2시간으로 정규직의 94년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47.4시간보다 21%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60.3%에 불과했다. 여성의 경우 월급여총액은 남성파견근로자의 70%정도에 불과하지만, 근무시간은 남성보다 16%가 더 길었다. 현재 파견 업체에서는 파견노동자의 임금가운데 20-40%이상을 떼어 가는 중간착취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취업주부들의 승진 차별이 여전함을 보고하였다. 한국 부인회가 '남녀 고용 평등의 달'을 맞아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취업주부들의 46.2%가 똑같은 경력과 직급을 갖고도 남성보다 승진이 늦다고 답했다. 또한 '비정규직으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13%를 차지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안을 담고 있지 않은 채, 효율과 비용절감으로 시행되고 있는 신인사제도를 통한 노동 현장의 변화는 이전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재로 활용될 수 있다. 유연성 시대의 여성 노동 시장을 발표한 조순경 이대 여성학과 교수는 "신인사 정책으로 여성노동이 노동시장에서 주변 노동으로 전락해 여성노동력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신인사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여성노동력이 주변노동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과 주변노동을 동식화시키는 이데올로기와 성별분업구조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조순경 교수는 우리 나라 노동정책과 여성정책이 구체적인 실증 자료에 기반하지 않은 채 일본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답습해 온 면이 많다고 지적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시간제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근로자 파견법, 그리고 신인사 제도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조교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노동의 질과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온다며 높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일수록 낮은 생산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조순경 교수는 외국의 경험을 기초로 한 세가지 노동시장정책의 대안 유형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 첫째,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희롱방지, 승진 승급 등 직장내에서의 성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평등의 유형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여성들의 이중노동부담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소하는 유형이 함께 해야 하며, 셋째,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유형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정에서 성별분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유형이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과대 여학생회가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과생의 37%가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였고, 학부생들의 77%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과대학에 진학한 많은 수의 학생들은 전공을 살려 계속적으로 공부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유학길에 올라 계속 공부하려는 경향은 최근에 들어 더욱 증가하였다. 서울대 50년사를 정리하며 조사한 한 자료에 의하면 60-70년대 졸업자들이 대기업 등에 진출한 것에 비해 80년대에 들어서는 대학원과 유학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한다. 현재 서울대 졸업자의 30%만이 순수 취업길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고학력자의 증가 추세 이면에는 석박사 학위에 큰 가치를 매기고 있는 사회에 나서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한번쯤 생각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있다. 학부 과정만으로 사회에 나서기에는 자신의 입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미국 아이비리그 졸업생들은 졸업 후 2-3년 사회 경험을 거친 뒤,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때는 사회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연구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부에 들어가며, 석사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이전의 학부 졸업자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게 된다. (실제 연봉에서 약 6만 달러의 차이가 난다고 함)

한국의 대학원 또한 연구 기관으로서의 면모보다는 이러한 실용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가 더 부각되고 있는 듯하다. 95년 연세대학교 자체 평가서중 대학원 항목중 석박사 학위 취득후의 취업률을 조사한 <표1>을 보면, 석사 학위 취득후 미취업 상태였던 사람들중 80%가 취업을 하였고, 박사 학위 취득 후에는 99%의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대학원 졸업시 취업이 보장된다는 것은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주된 이점이 될수 있을 것이다.

<표> 최근 3년간 대학원 미취업 학위취득자 중 취업자 비율

학년도	석사 학위			박사 학위			석. 박사 취업률 (%)
	미취업 학위 취득자	미취업 학위 취득자 중 취업자	취업률 (%)	미취업 학위 취득자	미취업 학위 취득자 중 취업자	취업률 (%)	
1992	725	509	70.2	232	230	99.2	77.2
1993	742	605	81.5	224	223	99.6	85.7
1994	807	674	83.5	227	226	99.6	87.0
계	2,274	1,788	78.6	683	679	99.4	83.4

그러나 연세 대학이 대학원의 취업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비해, 학생들은 대학원에서 깊은 연구를 하는 것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학생회가 조사한 설문 문항중 대학원 진학시의 이점에 대해서 많은 학부생들이(43%) 전공공부에 대해 보다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주되게 들었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35%) 자신의 진로와 전공의 활용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고, 취업여부와 관련된 문항은 15%만을 차지했다. 이 결과에서 미흡한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학원에 대한 학부생들의 기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대학원의 연구 기능이 학생들의 연구의욕을 채워준다고 말하는 이는 국내외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논의한다고 하는 교육 개혁안에서도 대학원의 문제점은 깊이 논의되지 못했다. 오히려 대학원은 대학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한국의 대학원은 해방후 대학발전사와 유사하게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2>를 보면, 1965년도에 비해 1993년도의 대학원 수는 열배에 달하며, 학생수는 삼십배에 이른 것을 볼 수 있다. 각 대학들은 연구 이미지 쇄신과 재정난 완화를 위해서라도 같은 이름을 건 대학원을 세우는데 열중했다.

<표 2> 28년간 대학원의 양적 팽창추세

연도	대학원 수		대학원 학생수	
	기관수	증가비	학생수	증가비
1965	37	1.00	3,842	1.00
1970	64	1.73	6,640	1.73
1975	82	2.22	13,870	3.61
1980	121	3.27	33,939	8.83
1985	201	5.17	69,946	18.18
1990	298	8.05	86,911	22.62
1993	350	9.46	103,974	27.06

그러나 이렇게 세워진 대학원의 양적 증가가 곧 질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학원을 기대하기에는 준비상태가 미비한 채로 설립이 추진되었고, 대학과정에서 겪는 교육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대학원 과정에 반영되었다. 대학원 전담 교수의 미비와 교육시설의 열악함에, 졸업 후 지속적으로 대학에 남아 일하는 경우가 희박함에 안정된 연구 분위기는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 교수인력의 부족

우리나라의 대학에 교수가 적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한 조사 자료는 교수 1인당 학생수가 영국 옥스퍼드대 및 일본 동경대의 9명, 일리노이대의 13명에 비해 서울대 21명, 연세대는 40여명이라고 보고했다. 교수 수가 적음에 따라 대학 교수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하여, 평균 주당 14.1 시간의 강의를 맡고 1인당 평균 40명의 학부생 상담 지도와 평균 9명의 학위 논문 지도 책무를 맡고 있다. (학부제 실시 이후, 이과대 내에는 교수의 학생부담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전임교원대 학생의 비율이 1:10 선이고 주당 강의시간이 한 시간내에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대학원의 연구 기능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교수가 크게 증원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중앙일보의 대학평가에서도 국내 유수의 대학들이 교수 확보에는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교수의 미흡함은 대학 학부에서도 만연되어 있어서, 부족 분은 많은 수가 전임강사와 시간강사의 수로 채워지고 있다. 학생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교수 수가 이를 따라 잡지 못하므로, 1988년 전임교수 1백명당 시간 강사수가 91명이었으나 1989년에는 오히려 시간강사 수가 전임교수를 능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90년에는 시간강사 수가 1백 11명에 이르러, 강사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표3 참조) 교양과목에서는 이점이 더욱 두드러져 전체적으로 40%의 교양과목을 시간 강사가 차지하며, 국립대 37%, 사립대 51%, 또한 교육대 27%, 개방대 43%의 비율을 시간 강사가 담당하고 있다. 주로 시간 강사가 40% 이상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국립이 50%, 사립이 72%이다.

<표3> 고등 교육 기간 전임교수 대 시간강사 비율

구분		연도	1988	1990	1992	1995
전임 교수 수	국공립		8,995	9,658	11,109	12,654
	사립		20,188	22,623	26,258	32,404
	전체		29,183	32,281	37,367	44,968
시간 강사 수	국공립		4,215	5,294	6,914	9,034
	사립		18,302	23,552	27,176	36,020
	전체		22,517	28,846	34,090	45,054
강사 비율(%)	국공립		46.9	54.8	62.2	71.9
	사립		90.7	104.1	103.4	111.2
	전체		77.2	89.4	91.2	100.2

시간강사의 의존을 심화는 당연히 강의질의 문제를 유발하며, 대학원에는 담당 교수의 미비함을 유발, 연구기능을 약화시키는 여건으로 작용한다. 또한 대학이 교수인원의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대학원 졸업자들이 대학에 계속 남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떤 이는 대학원의 개혁을 지적하며, [대학원 전임교수를 확보하거나, 대학의 교수 확보 기준을 대학원 강좌에 대해서 학사과정보다 2배 이상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에 상응하는 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교육시설 및 연구 여건의 열악함

연구 풍토를 조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교육시설과 공간의 확보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교육시설의 열악함은 그다지 낯설은 것이 아니며, 이공계생이라면 실험기자재의 미비도 빼놓을 수 없다. (설문조사에서도 최악한 부분으로 실험기자재가 23%, 연구 공간이 27.8%를 차지했다.) 공간문제 또한 심각하여 많은 이공계생들은 도서관의 협소함에 어려움을 느끼고 교수들은 연구실이 적은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미 이과대의 공간 사용률은 100%를 넘어섰고 강의실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시간표를 조정(0교시와 토요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학원생들을 위한 공간 사용은 더욱 어렵다. 이에 따라 대학원 중심대학을 지향하는 우리 학교는 연세과학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이곳에 대학원생들을 위한 세미나실과 도서실을 세울 것을 이야기 하였다. 새로이 세워질 연세과학연구센터가 현재 겪고 있는 공간과 실험기자재등의 교육시설의 부족을 얼마나 해결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대학원 중심으로 계획이 이루어질 것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지나쳐서는 안될 것은 대학원생 수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해 2000년대에는 현재의 2.5배에 이르는 대학원생을 모을 것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시설이 보완된다고 하여도 급증하고 있는 대학생의 수와 함께 맞추지 않는 한, 1인당 학생수의 공간은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간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공간 부족의 문제점은 학교 측에서도 느끼고 있는 것이어서 95년도 자체 평가에도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대학시설에서 지적되는 다른 문제점은 대학의 외형적 시설은 꾸준히 확충되고 있으나 학생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은 양호하지 못하며 기존 시설의 활용률이 저조한 것이다.”

“또한 연구시설에 대한 재정적 투자가 낮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연구 기자재가 부족하다. 대학시설에서 그 중요성의 인식이 결여된 분야가 후생 복지 시설이다... 교수의 복지 시설은 대학설치 기준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더욱 소홀히 되고 있다.”

*대학원생들에게 부과되는 여러 업무들

대학원생들이 생활에서 부딪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대학원이 마냥 공부만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행정업무가 대학원생의 손에서 처리되며, 조교업무와 그 외 담당교수님의 연구에도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서울대는 연구중심대학의 전환으로 [조교-조수제도 개선안]을 이번 2학기부터 도입하였다. 연구 장학금제도의 기금을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기금 조수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결정이 이 개선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기금 조수제란 대학원생들중에서 백여명을 선발, 하루 일과의 절반을 행정업무에 종사하고 월 50만원의 봉급과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서울대 조교들은 대학의 연구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이 제도에 반대하고 나섰다. 장학금의 기금을 행정업무 조수에 지원한다는 것은 대학원생들이 겪고 있는 행정업무에 대한 불만을 기금지원방식으로 해소하려는 의도이며 또한 그동안 지급되었던 장학금이 이렇게 전환된다는 것은 연구 의욕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생활비와 등록금을 위해서 조교수업을 동반하고 있으며, 담당 교수의 연구에도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95년 우리대학교 평가서에는 석박사과정의 학생들이 근 몇 년간 교수의 연구에 참여하는 비율을 조사, 표로 나타내었다.

<표3> 을 보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공동작업의 경우가 많은 자연계열의 참여율은 매우 높아서 2-3배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참여율은 최근 아주 크게 증가하였다. 자연계열의 94년도 참여율은 89%에 이르러 거의 대부분의 대학원생이 교수의 연구에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교수의 연구에 함께 하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위 자료에서는 교수와 대학원생의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유발시킬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진행시에 잡무가 과중하게 부과되는 이공계 연구의 경우 교수의 연구과제 참여는 대학원생이 자신의 연구 보다는 교수연구과제에 몰두하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이외에도 전담교수가 맡는 학회(만일 학회를 교수가 맡고 있다면)의 여러 업무와 정기적, 비정기적 행사업무에 시달리게 된다.

대학원생의 연구활성화의 측정은 논문 제출과 그 논문의 우수도 측정에 따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 논문은 제출되는 양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인용 논문횟수는 여전히 저조하다. 논문의 제출자체가 형식적인 경우도 있고, 다른 논문을 정리하여 내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표3〉 최근 3년간 교수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 비율
(95년 연세 평가서 중에서)

	대학원 재학생수	교수 연구과제 참여 학생수	학생 참여 비율(%)
1992			
인문 사회 계열	853	201	23.56
자연계열	1,516	957	63.13
예체능계열	53	14	26.41
소계	2,422	1,172	48.39
1993			
인문 사회계열	869	217	24.67
자연계열	1,644	1,210	73.60
예체능계열	58	16	27.59
소계	2,571	1,443	56.12
1994			
인문 사회계열	888	392	44.14
자연계열	1,748	1,556	89.01
예체능 계열	61	28	45.90
소계	2,697	1,976	73.26
계	7,690	4,561	59.70

▪ 산학협동 활성화의 단점

연세대학교가 대학원 중심대학을 지향하며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산학협동을 통한 재정지원과 연구소와 기업과의 연계임은 잘 알려져 있다. 이공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산학 협동이 다른 계열보다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왔고, 앞으로도 대학원의 실정에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학협동이 지니는 문제점은 가볍게 보아 넘길수 없는 것이다. 대학원생들은 기업이나 정부 연구소에서 의뢰한 과제들에 둘러 쌓이게 되며, 대학내의 연구풍토 또한 실용화에 치중해 다양한 연구 분야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학원생의 교수연구참여도의 높은 비율이 산학 협동을 통해 대학외부에서 제기되는 과제에만 치중하게 되는 것과 함께 작용한다면 대학원생들의 연구 여

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을 낳게 된다. 즉 대학원생들 또한 주어지는 과제에 급급해 자신의 연구를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학협동의 활성화가 사립대학의 재정적 적자를 메꾸는 주된 방안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업의 지원금에 의존한 대학 운영은 연구와 활동에 있어서도 학문의 중립을 지키지 못할 것이며,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기업에 떠넘기고, 기업은 대학을 유용하게 쓰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교육위원회가 10월 14일 첫 국제적 공식평가라 할 수 있는 한국교육정책 평가 보고서에는 이러한 대학의 문제점이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주되게 지적한 것은 한국 대학의 연구기능에 관한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대학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년간 학생수는 3배로 늘어난 반면, 교원건물및 실험실 등의 기타 시설은 충분히 증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되고 있다. [국제 교육수준의 향상을 꾀하려면 건물 교원교육 정보기술 등에 대한 재정지원증가와 대학의 제조 조직 구조 교수 방법 등에 있어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또, [대학의 연구를 위한 공공지원금의 대폭 증가, 정부 지원연구 기관및 기업체와의 협력체제 유지, 교수 연구원간의 이동의 원활화등]의 문제 해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시설의 미비와 교원의 확보는 대학원의 연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할 기본적인 문제점들이며, 또한 현 교육개혁이 풀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다. 교육개혁안은 대학원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할 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는 대학 학부가 겪고 있는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

수학과 : 소망이 - 글쓰느라 수고 했어요

선헤 - 어쩌다 이상한 언니를 만나 때 아닌 글 청탁을 하러 다녀야 했음.

천문대기 : 유정어, 지연어, 기영어 - 전해영 교수님 인터뷰에 함께 한 사람들.

운정어 - 천문 소개글을 쓰느라 수고.

생물과 : 수진이 - 배상한 기억력으로 선배님들의 근황을 말해준 아이.

운경어 (생물학과 부장) - 생물 소개글 받아다 준 고마운 아이.

생화학과 : 강경남 - 학과 소개글 청탁을 캐히 수락한 후배. 밤을 사주어야 하는데..

물리학과 : 윤성희 - 연속되는 시험일정에도 글을 쓰느라 송지언니에게 시달린 불쌍한 후배.

지질학과 : 가영어-글청탁과 현황 조사에 수고를 해준 너무 고마운 후배.

컴퓨터 과학과 : 윤영어 - 선배님들 현황을 조사해 준 아이.

소희 - 컴퓨터 과학과 대학원 선배님 인터뷰에 함께 한 후배.

인터뷰 및 글쓰기에 응해 주신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가나다 순)

김우영 선배님 (수학과 대학원)

김호선 선배님 (컴퓨터 과학과 대학원)

문혜정 선배님 (86학번 화학과 졸업, 벤리사 사무소에서 재직중)

박봉주 선배님 (90학번 컴퓨터 과학과 졸업)

서명아 선배님 (91학번 화학과 졸업, 우리학교 치대 편입)

신상희 선배님 (대기학과 대학원)

우미혜 선배님 (화학과 대학원)

이영숙 선배님 (91학번 화학과 졸업, 우리학교 건축공학과 복수전공)

전혜영 선생님 (81학번 천문대기 졸업, 대기학과 교수님으로 계심)

한소라 선배님 (지질학과 대학원)

한지원 선배님 (86학번 생물학과 졸업, 영국대사관 부상무관으로 재직중)

한옥 갈비

옛스러움과
푸짐한
아주머님들의 인정.
수정과가 정말
맛있어요.

392-8525

띠디

(구.피터팬)

중화요리 전문
안뜻한 분위기!
쾌속 배달

336-0048 336-1423

신장개업!!

中華料理 紅梅(홍매)

신촌에서 보기도문
근사한 중국집이야.

313-1001

만미원 (1)

신촌의 명소.
돼지갈비 · 등심
삼겹살 · 해장국

334-4151

